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15호 【루계 제25989호】 주체107(2018)년 4월 25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혁명적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자

물길굴건설을 위한 작업갱공사 련이어 완성

단천발전소건설장에서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혁신의 불길이 단천발전소건설장에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년초부터 총돌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온 조선인민군 백일남소속부대에서 3월말까지 길이가 수백m에 달하는 5개의 작업갱공사를 전부 끝낸데 이어 북성려단과 대흥지도국려단, 라선시려단, 황해남도물길건설돌격대들에서도 각각 한개이상의 작업갱굴진을 앞당겨 끝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결과 단천발전소건설에서 주타격대상인 기본물길굴공사를 본격적으로 다그칠수 있는 진격의 돌파구가 열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빛나는 영웅적투쟁과 집단적혁신의 전통을 이어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 합니다.》

현장지휘부에서는 발전소건설에서 물길굴공사가 가지는 중요성을 명심하고 짧은 기간에 작업갱공사를 전부 끝내기 위한 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특히 일군들은 설비, 자재보장에 큰 힘을 넣으면서 단위별, 갱별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이와 함께 설계부문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합리적인 작업갱공사방법들을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조선인민군 백일남소속부대에서는 5개의 작업갱공사에 력량을 집중하고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앞선 굴진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높은 공사속도를 기록하였다.

부대지휘부에서는 작업갱굴진을 위한 입구단면잡기, 통력선공사 등을 힘있게 내밀었다. 또한 권양기와 압축기를 비롯한 막장설비들을 그때 갖추는 사업에 선차적힘을 넣었다.

이 과정에 모든 갱들에 능률적인 권양기와 압축기들이 막장가까이에 전개되여 사갱굴진을 본격적으로 다그쳐 끝낼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였다.

당에서 준 과업을 결사관철할 일념안고 굴진전투에 진입한 각 구분대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은 작업갱공사를 끝내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고 하면서 막장마다에서 총돌격전을 벌리였다.

35-2갱공사를 맡은 구분대의 전투원들은 작업갱굴진을 한시라도 빨리 다그쳐 끝내기 위해 앞선 천공방법을 받아들이면서 교대가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였다.

그들은 양수기와 수중뽐프의 대수를 늘이고 용량이 큰 집수정건설을 예견성있게 진행하였으며 능률적인 굴진설비들을 리용하여 340여m나 되는 작업갱굴진을 2월말까지 성과적으로 끝내는 자랑을 떨치였다.

35-1갱과 36갱, 38-1갱과 39-2갱공사를 맡은 구분대들의 군인건설자들도 막장의 길이가 늘어나는 조건에 맞게 중간권양기장을 건설하여 버럭처리속도를 높이였으며 련속적인 굴진전투에서 집단적혁신을 창조하였다.

백일남소속부대의 지휘관들은 작업갱공사가 본격적으로 벌어질수록 전투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고 막장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밀고나갔다.

특히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송풍기를 자체로 제작도입하고 발파가스를 빠른 시간에 없앨수 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높은 공사속도가 창조되도록 하였다.

경사가 급하고 길이가 긴 5개의 작업갱굴진을 련이어 끝냄으로써 성과를 더욱 확대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은 이곳 부대의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은 지금 10여개소에서 기본물길굴공사에 진입하였다.

북성려단, 대흥지도국려단 지휘관들과 전투원들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년초부터 드세찬 공격전을 벌려 성과를 확대하였다.

려단지휘부들에서는 공사장이 분리한 위치에 전개된 실정에 맞게 갱굴진을 위한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앞선 단위의 공법을 모든 단위들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이 여러차례나 진행되였다.

북성려단의 전투원들이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굴진성과를 확대해나갔다. 그들은 능력이 큰 권양기를 막장안에 끌어들이고 압축기의 만가동을 보장할수 있는 여러가지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이면서 교대가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였다.

대흥지도국려단에서는 석수량이 많은 실정에 맞게 각종 양수기, 수중뽐프의 대수를 늘이고 긴장한 공사기일을 앞당기기 위한 능률적인 굴진방법들을 받아들이면서 완강한 돌격전을 벌려 작업갱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내였다.

라선시려단에서는 굴진공들의 역할을 높이고 앞선 발파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1개의 작업갱공사를 완성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황해남도물길건설돌격대에서도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진창열동무를 비롯한 이곳 지휘관들은 지난해에 평안남도려단에서 1개의 작업갱공사를 끝내고 기본물길굴공사에 진입한데 맞게 마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면서 공사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진행하였다.

결과 26-1갱을 맡은 황해북도려단과 26-2갱을 맡은 자강도려단에서 또다시 작업갱공사를 완성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단천발전소건설장에서 련이어 이룩되고있는 성과는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산악같이 떨쳐나 결사관철하는 이곳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현지보도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 철강재를 우선적으로 생산보장

성진제강련합기업소에서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을 최단기간에 다그쳐 끝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때에 성진제강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철강재생산에서 로력적위훈을 창조하고있다.

이곳 련합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지난 2월과 3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에 필요한 철강재를 신속히 생산보장한데 이어 4월에도 짧은 기일안에 맡겨진 철강재생산과제를 높이 번쩍 나게 해제끼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언제나 강철로 우리 당을 앞장에서 옹위하여온 자랑스러운 투쟁전통을 가지고있는 성강로동계급은 최후승리를 향한 오늘의 대진군에서도 위훈의 자욱을 뚜렷이 새겨 놓라는 일념을 안고 철강재생산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섰다.

들끓는 생산현장에 위치를 정한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일군들은 사상전의 집중포화, 련속포화, 맹중포화를 들이대며 당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진행되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에 필요한 철강재생산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련합기업소에서는 기본생산단위들의 설비상태를 빠짐없이 장악한데 기초하여 설비보수를 위한 작전을 치밀하게 세우고 완강하게 내밀었다. 그리하여 10일이상 걸려야 한다던 3강철직장의 전기로와 기중기들의 보수를 5일안으로 끝내고 생산에 진입하도록 하였다.

현장에서 능동적인 전투작전과 지휘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일군들의 혁명적인 일본새는 일터마다에서 증산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하는 밑불이 되였다.

3강철직장 용해공들이 혁신의 앞장에서 차지당 쇠물생산량을 높여나갔다. 3호, 6호전기로작업반 용해공들이 공정간 맞물림을 과학적으로 하고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면서 출강회수를 늘여나갈 때 모든 조피작업만 로동자들은 쇠물을 허실없이 받아내기 위한 조피작업을 책임적으로 해나갔다.

혁신의 불길은 압연강재생산현장에서도 타번졌다.

1조장직장 로동자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힘을 넣어 설비마다 만부하를 걸고 각강생산을 줄기차게 밀고나갔다.

1원료직장, 공무직장을 비롯한 보장부문 로동자들은 강철생산을 함께 책임졌다는 자각을 안고 높은 헌신성을 발휘하여 강철생산을 믿음직하게 떠밀어주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에 필요한 철강재를 신속히 생산보장하기 위한 불꽃튀는 전투가 벌어지고있는 생산현장으로 련합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의 가족들까지 여러가지 지원물자를 안고 찾아왔다. 생산자들의 전투적사기는 더욱 높아져 모든 직장들에서 당이 맡겨준 전투과제를 빛나게 수행하는 혁신이 창조되였다.

성진제강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지금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높이 받들고 철강재생산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을 떨치며 전진속도를 높여가고있다.

본사기자 리철옥

논밭갈이 마감단계에서 추진

각지 농촌들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입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논밭갈이전투에서 헌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4월 22일현재 논갈이는 83%, 밭갈이는 82%계선을 돌파하였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불철기상 기후조건 또한 변덕스러운 올해의 불리한 조건속에서 이룩되고있는 이 성과는 당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 하며 경제건설의 주타격전방을 믿음직하게 지켜나가는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고결한 충정과 불타는 열정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성과 각 도, 시, 군의 농업지도기관 일군들은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대중속에 깊이 인식시키는 한편 그들모두가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자강력을 높이 발휘하며 논밭갈이전투성과를 확대해나가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황해북도와 평양시의 농촌들에서 논밭갈이가 성과적으로 결속되여가고있다.

황해북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농촌경리위원회일군들은 이미 4월 8일까지 밭갈이를 끝낸데 맞게 논갈이일정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사리원시, 연탄, 봉산, 은파군을 비롯한 도안의 많은 군들에서 논갈이를 끝낸데 이어 송림시, 황주, 서흥군들에서도 일정계획에 맞추어 논갈이전투를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만경대, 사동, 형제산, 순안구역과 강남군, 강동군을 비롯한 평양시의 모든 농촌들에서 뜻깊은 태양절전까지 밭갈이를 끝낸데 맞게 논갈이에 로력과 기계수단, 부림소들을 총집중함으로써 4월 22일현재 96%의 논갈이실적을 기록하였다.

평안남도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4월 중순까지 밭갈이를 결속한 기세드높이 논갈이전투에서도 비상한 정신력을 발휘하여 23일현재 90%의 실적을 기록하였다.

숙천군에서는 논밭갈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는 한편 총화평가사업을 정확히 진행하여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부쩍 높여주었다. 뿐만아니라 군안의 수백대의 뜨락또르들에 연유절약기를 설치리용하도록 함으로써 뜨락또르가동률을 최대로 높이고있다.

문덕군에서는 대중의 드높은 열의에 맞게 논밭갈이정형에 대한 록화물을 통하여 잘된것은 무엇이고 부족점은 어떤것인가를 명백히 알려주면서 총화사업을 실속있게 따라세우고있다.

나라의 알곡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황해남도의 농촌들에서 기계수단과 부림소들을 총동원하여 논밭갈이전투를 완강하게 다그쳐나가고있다.

당의 뜻대로 전야마다 풍요한 가을을 마련하여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 높이 울려퍼지게 하는데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떨쳐나선 안악, 신천, 신원, 은률군을 비롯한 도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 전인분발하며 논갈이를 힘있게 다그쳐 23일현재 84%계선을 돌파하였다.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가 긍지높이 선언되고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이 제시된 뜻깊은 올해 주타격전방에 기어이 승전고 높이 울릴 비상한 각오안고 분발해나선 함경북도, 함경남도를 비롯한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힘찬 투쟁으로 하여 논밭갈이가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본사기자 장은영

강철전선을 힘있게 지원

전국각지에서

전국각지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강철전선을 지원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의 마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실천활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각 도, 시, 군들과 성, 중앙기관의 일군들이 파철모으는 사업을 군중적운동으로 활발히 벌리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지난 1.4분기 파철모으기계획을 142%로 넘쳐 수행하여 전국의 앞장에 선 평양시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충폭발시켜 강철전선지원사업을 계속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중구역, 대성구역, 서성구역, 만경대구역, 락랑구역, 사동구역을 비롯한 시안의 모든 구역, 군들에서는 철강재가 많아야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파철원천탐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함경북도, 남포시, 평안북도, 자강도, 황해북도에서도 강철전선지원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1.4분기에 파철모으기에서 높은 실적을 올린 정주시에서는 일군들부터 앞장에 서서 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강철전선지원사업에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태천군, 천마군, 만포시를 비롯한 많은 시, 군들에서는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리면서 파철모으기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성, 중앙기관 일군들도 철강재생산에 크게 이바지할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안고 강철전선지원사업에 떨쳐나 실적을 올리고있다.

국가건설감독성, 출판지도국, 체신성, 보건성, 대외건설지도국을 비롯하여 40여개에 달하는 성, 중앙기관들에서는 1.4분기 파철모으기계획을 130%이상으로 넘쳐 수행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파철원천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가고있다.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성의껏 모아놓은 파철을 제철, 제강소들에 제때에 실어보내기 위하여 철도운수부문 수송전사들이 증송투쟁에 떨쳐나섰다.

청진철도국에서는 화차들의 수리정비에 품을 넣어 맡겨진 파철수송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높이 받들고 최후승리를 위한 진군길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강철전선지원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삼지연군에 들쭉음료공장이 일떠선다

삼지연군에 현대적인 들쭉음료공장이 일떠선다.

이 공장이 건설되면 유명한 백두산특산물인 들쭉을 주원료로 하는 들쭉술과 들쭉발효주, 들쭉단물 등이 생산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량강도에서는 들쭉술과 들쭉단묵, 들쭉시럽을 많이 생산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해주어야 합니다.》

전국의 모범군, 본보기군, 세상에 둘도 없는 산간도시로 훌륭히 전변된 삼지연군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또 하나의 훌륭한 음료공장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군에서는 공장건설준비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구호와 표어들을 현장에 게시하고 방송선전활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공사장에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이 차넘치게 하고있다.

군당위원회책임일군들은 들끓는 전투현장에 들어가 돌격대원들이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고있다.

현장지휘부에서는 건재생산과 자재확보에 모를 박고 조직정치사업을 전투적으로 짜고들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은 더 많은 블로크를 생산할수 있는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있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소식에 접하고 용기백배하여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은 세멘트와 흰석보장을 앞세우면서 블로크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2대대에서는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리면서 질제고에 힘을 넣고있다. 공장건설에서 블로크생산의 중요성을 깊이 명심한 돌격대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면서 힘찬 전투를 벌리고있다.

삼지연군꾸리기에서 한몫 단단히 할 애국충정으로 가슴을 세차게 끓이며 분발해나선 3대대의 녀성돌격대원들도 블로크생산에서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고있다.

기술중대의 돌격대원들은 자체의 힘으로 절단기, 연신기들을 마련해놓고 건축공사에 절실히 필요한 강재가공에서 헌일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군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탐구하여 수십t의 강재를 자체로 확보한 기세로 자재를 중단없이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힘을 넣고있다.

또한 그들은 많은 밤태목과 휘틀감을 마련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군안의 녀맹원들을 비롯한 많은 근로자들이 전투장에 달려와 지원의 뜨거운 마음을 바쳐가고있다.

짧은 기간에 수천㎥의 흰석을 실어들이고 10여만장의 블로크를 생산한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을 위한 총돌격전을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216사단에서는 자재와 운수수단보장을 앞세우면서 시공에 대한 기술지도를 짜고들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전철주

상반년, 년간계획완수자 계속 배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위훈이 새로운 위훈을 낳고 기적이 더 큰 기적을 안아오는 만리마시대의 거세찬 열풍속에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상반년, 년간 인민경제계획완수자가 련이어 배출되고있다.

4월 24일현재 공장에서는 23명이 년간계획을, 120여명이 상반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난관앞에 주저앉지 않고 승리에 자만하지 않으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것은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고유한 혁명정신이며 투쟁기풍입니다.》

당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를 안고 새해벽두부터 줄기찬 생산전투를 벌려 지난 1월 15일 공장적으로 제일먼저 1.4분기계획을 완수한 방적종합직장 조방공 김주경동무가 년간계획완수자대렬에도 제일먼저 들어섰다.

키워주고 내세워준 고마운 어머니조국에 청춘의 심장을 아낌없이 바칠 일념안고 지난 4년동안 해마다 년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였으며 하루계획을 500%이상 넘쳐 수행한 그는 조방공 한명이 한대의 조방기를 다루는 기존공식을 깨뜨리고 공장이 생긴이래 처음으로 두대의 조방기를 맡아나섰다. 22살처녀조방공의 혁신의 소식은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는 공장의 숨결을 더욱 높뛰게 하였다.

견방종합직장의 직포공들도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만리마를 탄 기세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근 20년간 해마다 년간계획을 앞당겨 완수해온 4직포직장 직포공 한명희동무는 뜻깊은 올해에도 년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였다.

평범한 직포공을 조선로동당원으로,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내세워준 어머니당의 사랑과 믿음을 가슴에 새겨안은 그는 5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 지난해보다 더 높은 목표를 걸고 년초부터 줄기찬 생산전투를 벌려왔다.

한명희동무가 년간계획을 남먼저 끝내자 직장안의 많은 직포공들이 더욱 분발하여 하루계획의 3배, 4배이상의 목표를 내걸었으며 결과 같은 직장의 직포공 신은별, 방적직장 연사공 김수련, 리금연동무가 년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뿐만아니라 다추다기대운동의 선구자로 소문난 방적종합직장 청년정방직장 옥양공 리정화동무도 1.4분기계획을 남먼저 수행한 자랑을 안고 계속전진, 계속혁신하여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년로한 몸에도 세 세대 방직공들을 훌륭히 키워낸 열의안고 일터를 뜨지 않고있는 전옥화영웅의 일본새와 정신세계를 본받아 화학섬유방적종합직장 권사직장 연사공 조명심, 리은정동무도 준마처녀의 소중한 부름을 간직하고 위훈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년간계획완수자의 영예를 지니였다.

사회주의경쟁열풍속에,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기풍이 발휘되는 속에 공장에서는 상반년, 년간계획완수자대렬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전례없는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고있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방직공들의 드세찬 투쟁열풍은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로력적위훈으로 빛내일 불같은 혁명열, 애국열의 발현이다.

본사기자

주체형의 첫 혁명적무장력을 창건하신 절세의 애국자

조선인민혁명군창건 86돐에 즈음하여

우리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받아안은 격정의 파도가 세차게 굽이치는 조국강산에 뜻깊은 4월 25일이 밝아왔다.

주체적혁명무력건설의 성스러운 력사에 금문자로 빛나는 이날을 맞이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뜻깊은 그날을 감회깊이 추억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의 진정한 군대를 가지게 되였으며 이때로부터 총대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가 시작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6년전인 주체21(1932)년 4월 25일, 소사하와 홍룡촌일대는 이른아침부터 감격과 흥분으로 끓고있었다.

우리 민족이 학수고대하던 진정한 인민의 혁명적무장력이 곧 자기의 탄생을 선포하게 된것이였다.

어깨에 총을 메고 몸에 꼭 맞는 새 군복을 입은 대원들이 발걸음도 힘차게 조선인민혁명군창건식이 거행될 토기점골등판으로 향하였다.

민족사에 특기할 이날을 축하해주듯 하늘은 구름 한점 없이 맑게 개이고 산새들도 청고운 소리로 지저귀고있었다. 언제 이렇듯 맑고 푸른 하늘을 기쁨속에 바라보고 산새들의 지저귐소리를 이처럼 정답게 들어본적이 있었던가.

기운차게 토기점골의 등판에 오른 대원들이 구분대단위로 이깔나무숲속에 정렬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조국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에 한몸바칠것을 맹약한 열혈의 동지들이였고 인민의 우수한 아들들이였다.

등판공지의 한복변두리에는 소사하와 홍룡촌일대의 인민들이 모여서 그 장한 모습을 지켜보고있었다.

대오의 첫머리에는 붉은기가 펄펄 휘날리고있었고 울창한 숲속으로는 눈부신 아침해살이 천갈래만갈래로 비쳐들었다.

대원들의 가슴은 한껏 부풀어올랐다.

이윽고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등판으로 나오시였다.

일제히 터져오른 《만세!》의 환호성이 백두의 수림에 메아리쳤다.

아버님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권총을 차시고 너럭바위에 오르시여 손을 들어 답례를 보내시는 20대의 청년장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우리 혁명무력의 름름한 첫 대오를 둘러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눈앞에는 가지가지의 회억들이 구름처럼 떠오르시였다.

이 무장대오의 결성을 위하여 넘어온 준령은 그 얼마였고 가슴아픈 희생은 또 얼마였던가.

정녕 첫 혁명적무장력의 창건은 수많은 동지들의 피어린 투쟁과 희생의 값비싼 대가로 이루어진 우리 혁명의 고귀한 산아였다.

인민들의 가슴마다에는 환희의 소용돌이가 세차게 일어번졌다.

압제의 쇠사슬에 묶여 신음하는 조국강산에 해방전의 총성이 진감하고 나라잃은 설음으로 피멍이 든 삼천리강토에 민족재생의 려명이 밝아오르리라!

한동안 감개무량한 눈길로 대오를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연설을 시작하시였다.

《동무들!

오늘 우리는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벌려 강도 일본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온 골안에 울려퍼지는 백두산장군의 쩌렁쩌렁하신 음성, 그것은 캄캄한 누리에 폭풍과 빛을 휘몰아오는 장엄한 서곡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을 선포하시자 대원들은 또다시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인민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군중의 환호에 답례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 우리 나라 삼천리금수강산은 일제놈들의 말발굽밑에서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다고 하시면서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총대로 때려눕힐 의지를 지니시고 일제침략자들에게 선전포고를 하신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영웅을 우러러 전체 대원들은 총을 높이 추켜들며 호응하였다.

주체적혁명무력건설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조선혁명박물관에서—

얼마나 애타게 바라고바라던 이날이였던가.

인민들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서로 얼싸안고 들어갔다.

진정한 인민의 군대를 일일천추로 갈망해온 우리 민족이 비로소 자기의 혁명적무장력을 가지게 된 기쁨도 이를데 없었지만 보다는 그처럼 젊으신 청년장군을 조선군대의 령수로 모신 행운이 더 사변적이였다.

《만세! 만세!…김일성장군 만세!…》

토기점골등판에 터져오른 만세의 환호성은 조선민족이 간절히 념원하던 혁명무력을 창건해주신 최세의 청년장군께 드리는 이 나라 인민들의 다함없는 감사의 분출이였다.

그로부터 며칠후인 5월 1일 안도현성의 소재지는 백두새벽부터 소사하와 주변부락 인민들은 물론 그곳에 주둔하고있던 반일부대 병사들까지 떨쳐나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에 반일인민유격대의 위력을 과시하는 열병식을 진행하도록 하시였던것이다.

거리의 여기저기에는 《반일인민유격대를 열렬히 환영한다!》, 《단결은 힘을 배가하고 분렬은 힘을 반분한다!》 등의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안도현성을 뒤흔드는 항쟁한 나팔소리가 울린데 이어 《반일인민유격대》라고 쓴 기발을 앞세운 유격대원들이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거리로 보무당당히 들어섰다.

산뜻한 군복에 붉은 오각별을 단 모자를 쓰고 번쩍이는 총을 멘 유격대원들의 모습을 본 인민들은 눈물을 머금고 조국해방의 성전에 나선 유격대원들에게 환호를 보내고 또 보냈다.

반일부대 장교들과 병사들도 엄지손가락을 흔들며 환영의 인사를 보내고 축하의 박수를 쳐주었다.

거리중심에 들어선 반일인민유격대가 질서정연하게 정렬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주석단에 나오시여 열병대오를 사열하시였다.

유격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해별에 번쩍이는 총을 억세게 틀어잡고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주체형의 첫 혁명적무장력의 력사적인 열병식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이 끝나자 유격대원들의 행진이 진행되였다.

지축을 울리며 씩씩하게 나아가는 유격대원들의 힘찬 발걸음소리는 인민들에게 커다란 신심을 안겨주었고 강도 일제를 공포속에 몰아넣었다.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의 수림속에서 주체형의 첫 혁명적무장력을 창건하신 그때로부터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희망의 등대로 되였으며 총대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조선혁명의 성스러운 력사가 시작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형의 첫 혁명적무장력을 창건하신 력사의 그날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 나날 우리 혁명무력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탁월한 령도아래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승리적으로 뚫고헤치며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억세게 자라났다.

강위력한 총대이자 민족의 생명이고 혁명의 승리이다!

이것은 조선혁명의 진로정에 관통되여있는 고귀한 진리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이 간고한 혁명의 길에서 심장으로 터득한 철석의 신조이다.

하기에 이 나라 전만군민의 가슴속에는 주체형의 첫 혁명적무장력이 탄생한 력사의 그날이 소중히 간직되여있는것이다.

뜻깊은 4월 25일과 더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 위대한 수령님의 군건설업적을 길이 빛내여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글 본사기자 김일권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우리 조국을 교육의 나라로

교육사업은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인재대군을 키우는 중대한 사업이다.

오늘의 시대는 과학기술이 사회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지식경제시대이며 인재들에 의하여 나라의 국력과 경제문화의 발전이 좌우되는 인재중시의 시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과학과 교육은 국가건설의 기초이며 국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하시면서 자체의 과학기술력과 교육수준이 높아야 강대한 국가를 건설할수 있고 자주성도 견지할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부강번영할 사회주의조국을 떠메고나갈 사랑하는 후대들을 더 훌륭히 키우기 위한 교육사업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새기며 우리 인민은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내다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 교육중시의 숭고한 력사가 끊없이 흐르고있다.

혁명은 대를 이어 계속되는것만큼 그 승계와 전도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어떻게 교육교양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력사는 어제이고 교육은 미래라는 말도 있다.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을 한길을 늦추면 조국의 전진이 열걸음, 백걸음 떠지게 된다. 그래서 나라마다 교육발전을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힘을 넣고있다.

말하는 시대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교육사업을 선차적인 사업으로 내세우시고 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온갖 심혈과 로고를 바치고계신다.

지금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난 1월 새로 개건된 평양교원대학을 찾으시였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신의 자욱자욱을 뜨거운 가슴으로 더듬어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2월 평양교원대학을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본보기대학으로 잘 꾸리고 전국에 일반화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개건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며 완공에로 이끌어주시였다.

첨단교육설비들과 현대적인 교구비품, 관리운영설비들을 갖춘 평양교원대학의 어디곳을 돌아보시면서는 대단히 기뻐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담당한 교육자들에게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준것 같고 금방석을 마련해준것 같은 심정이라고, 조국의 창창한 미래가 눈앞에 선히 그려진다고 못내 만족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루리가 든든하여야 총실한 열매가 달리는것처럼 교원의 자질이 높아야 학생들의 실력이 높아진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교원진영을 적격자들로 잘 꾸리는것이 중요하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한 교육자양성의 원종장인 교원대학들을 중시하고있으며 그래서 평양교원대학을 품을 넓고 개건현대화하였다고, 각 도들에서도 이곳을 본보기로 하여 교원대학들을 잘 꾸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교육조건과 환경은 인재양성의 귀중한 밑거름이라고, 대학, 학교들을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에 편리하게,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문화혁명의 거점답게 훌륭히 꾸리는것과 함께 이 사업을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강하게 밀고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일군들과 교원들은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교육을 국가건설의 기초로, 국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중시하시는 위대한 정치가, 자애로운 스승을 높이 모신 한없는 긍지의 분출이였다.

끓어오르는 격정속에 그들이 가슴깊이 새긴것은 무엇이였던가.

그것은 교육사업은 애국중의 애국이라는 진리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드시여 이 땅에 새 세기 교육혁명의 거세찬 열풍을 일으켜주시며 끝없는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참으로 인재강국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할수 있게 교육체계를 더욱 완비하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며 교육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손길을 떠나 우리 교육의 래일을 생각할수 없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근년간 우리 당이 혁명발전의 더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추켜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인재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받아안고 심장을 불태우는 이 시각 온 나라 교육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나가는 성스러운 길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우리 조국은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세계에 앞서나갈것이다.

본사기자 전광남

과학자들에 대한 다심한 사랑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과학자들을 위한 모든것을 다 최상의 수준에서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과학자들의 가슴가슴은 우리 나라를 과학기술강국으로 빛내이는 길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과학자들을 금방석에 앉혀주시고 주실수 있는 온갖 은정을 다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어버이의 사랑속에서 충정의 대오로 성장한 우리의 과학자대군이 아니던가.

우리 과학자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은 무한대한 과학기술력의 마물줄 모르는 원천이다.

어느해 가을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완공된 연풍과학자휴양소를 찾으시였다.

그이를 휴양소에 모시게 된 일군들의 격정은 남달랐다.

울창한 수림속에 자기의 멋진 자태를 자랑하며 우뚝 솟아난 휴양각들과 봉사건물들, 시원하게 쭉 뻗어나간 특색있는 외랑…

우리 과학자들이 마음껏 문화정서생활을 하며 휴식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노래반주기재와 오락시설, 체육기재들이 일식으로 갖추어져있고 실내물놀이장과 리발실, 미용실, 식사실과 연회장 등이 훌륭히 꾸려져있는 종합봉사소는 만사람의 감탄을 자아내였다.

일군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종합봉사소의 봉사시설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는 그이의 안광에 시종 기쁨의 미소가 어리여있었다. 전실과 침실, 세면장 등으로 이루어진 호실들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이윽고 로대로 나오시여 종합봉사소건물과 휴양각들의 전경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축형식이 정말 멋있다고 환한 웃음을 지으시였다.

잠시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정겨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이런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연풍과학자휴양소는 그야말로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금방석입니다. 연풍과학자휴양소는 당에서 정말 큰마음을 먹고 건설한 휴양소입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금방석!

우리 과학자들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며 최상의 휴양소를 안겨주시며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일군들모두는 뜨거운 격정을 터치였다.

위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마련해주신 금방석의 주인공들은 심장으로 웨친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자애로운 스승으로, 어버이로 높이 모신 우리 조선의 과학자들처럼 행복하고 긍지높은 과학자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본사기자

김영남동지가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을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는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리기석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을 만나 동포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회상기학습을 실천과 결부하여

피현군 하단리 당위원회에서는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니였던 투철한 혁명정신을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독보와 해설, 연구발표모임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회상기학습을 참신하게 벌리도록 하는 한편 당세포위원장들이 회상기에 담겨진 내용을 깊이 학습한데 기초하여 대중속에 들어가 화선식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도록 떠밀어주고있다.

얼마전 어느 한 작업반에 나간 한 일군은 작업의 쉴참에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에 대한 해설모임을 가지였다. 이날의 해설모임은 당원들과 농장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회상기학습을 통하여 이곳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불타는 일념으로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로농통신원 최원화

당의 새로운 혁명적로선에 관통되여있는 근본핵, 기본원칙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는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에 토대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로선을 제시하였다.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에 관통되여있는 근본핵, 기본원칙은 자력갱생이다. 여기에는 장구한 혁명실천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자력갱생의 위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대비약적혁신을 이룩하려는 조선로동당의 드팀없는 의지가 맥박치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의도에 맞게 자력갱생, 전인분발함으로써 조국번영의 활로를 열고 훌륭한 미래를 앞당겨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의 새로운 혁명적로선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왜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어야 하는가.

—그것은 우선 강력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이 가장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 위한 우리 인민자신의 창조투쟁이기때문이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철두철미 자기자신을 위한 투쟁이다.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사회에서 경제를 발전시켜 물질적재부를 더 많이, 더 좋게, 더 빨리 창조할수록 윤택해지는것은 인민생활이다. 세상에 부럼없는 문명한 생활은 응당 우리 인민자신이 주인이 되여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안아와야 한다.

자력갱생의 길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자존심과 존엄을 지키고 더욱 빛내여나가기 위한 길이다. 경제적예속은 곧 정치적예속이다. 사람이 제것이 없으면 구차해지고 주눅이 들게 되며 나중에는 존엄마저 잃게 되는것처럼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오직 자력갱생, 전인분발하여 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하면 대외적으로는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존엄과 권위를 잃게 되고 내부적으로는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 수입병을 비롯한 형형색색의 잡사상이 나타나게 되며 나중에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을 위한 혁명 그 자체를 말아먹게 된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조국에서 사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남의 도움과 원조에 기대를 거는것과 같은 현상은 추호도 있을수 없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번영의 활로는 자기 식, 자기 힘으로 개척해나가야 민족적자존심과 존엄을 지키고 끊임없는 륭성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자력갱생은 결코 정세가 엄혹하고 무엇이 부족한 시기에만 추켜드는 기치가 아니다. 전반적정세가 혁명에 유리하게 조성될수록, 국력이 강화될수록 더 높이 발휘해야 하는것이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이다. 만일 그 누구에게 기대를 걸고 무엇을 해결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력사와 현실이 보여주듯이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와의 정치군사적대결에서 패할수록 경제제재에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려왔다.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압살야망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 정세가 어떻게 변한다고 해도 자기 힘으로 자기 앞길을 개척해나가겠다는 굳은 각오, 자기 식대로 번영을 이룩해나가겠다는 배짱, 이것이 오늘의 경제건설대진군참전자들이 억세게 간직하여야 할 사상정신이다.

전체 인민이 남에 대한 의존심과 수입병을 철저히 뿌리뽑고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높이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갈 때 나라의 경제를 상승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우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남부럽지 않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될것이다.

—그것은 또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대비약적혁신을 이룩하고 하루빨리 세계를 앞서나가기 위해서이다.

우리의 경제를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경제, 지식경제로 만들고 나아가서 세계를 확고히 앞서나가는 선진적인 경제로 전변시키는것은 강력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목표이다. 경제건설에서 남의 식, 남의 힘에 의거하여서는 설사 남의 뒤를 따라갈수는 있어도 남을 절대로 따라잡을수 없다. 앞선다는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국력경쟁이 날로 치렬해지고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그 어느 나라도 남들이 자기를 앞서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다른 나라를 진심으로 도와줄수도 없다. 세계를 향하여 돌진하는 경제, 세계를 딛고 일어서는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최상의 방도, 유일한 지름길은 오직 자력갱생뿐이다.

현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은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지위를 규정하는 동시에 그 진도를 좌우한다. 오늘날 자력갱생정신의 두철성은 현대과학기술에 대한 태도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과학기술은 본질에 있어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기 위한 인간의 창조적힘이다. 과학기술이야말로 자력갱생강자들의 가장 위력한 보검이다.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이룩하려는 인민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과학기술을 중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세계를 앞서나가야 한다.

온 사회에 과학기술학습열풍이 휘몰아치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분위기가 확고히 선 나라, 근로자들모두가 지식형의 인재로 자랑떨치는 인민에게는 절대 못할 요새, 극복 못할 난관이란 있을수 없다. 때문에 우리 당은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는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과학교육사업발전문제를 중요하게 토의한것이다.

당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고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지닌 인민대중과 당이 키워낸 과학자, 기술자진영이 있으며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는 자립경제의 토대가 있기에 새로운 혁명적로선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을 강력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위력한 추동력으로 내세운 당의 뜻을 뼈속깊이 새기고 자력갱생의 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국가로 빛내이고 인민의 자주적리상과 행복을 꽃피워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되여야 할것이다.

김성남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에로 힘있게 추동하는 당조직들의 조직정치사업

령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서 중시한 문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당건설사상과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환치의 드팀도 없이 끝까지 관철하며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틈입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새 세기의 첫해에 라남의 봉화를 지펴올렸던 로동계급의 투쟁정신은 년대를 이어 오늘도 역세계 맥박치며 창조와 변혁의 불길을 거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이것은 련합기업소당위원회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방법론있게 전개한것과 관련된다.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사업에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준비시켜

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기업소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우선 사상교양거점을 훌륭하게 꾸리고 그를 통한 위대성교양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당위원회가 잘한것은 당, 행정일군들부터 자신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준비하도록 한것이다.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이 진행될 때였다. 당위원회책임일군은 당, 행정일군들로 돌격대를 조직하여 그들이 이 사업에서 선봉에 서도록 할 의향을 내놓았다. 로력이 긴장해서가 아니였다. 위대성교양거점을 훌륭히 꾸리는 과정을 통하여 당, 행정일군들의 가슴마다에 절세위인들의 위대성을 깊이 심어주고 그들이 수령의 유훈관철전에서 기수가 되도록 떠밀어주기 위해서였다.

그후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일떠세우는 과정을 통하여 당, 행정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전사, 제자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 의지를 뜨겁게 간직하였다.

당위원회에서는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업을 문답식학습의 방법으로 심화시켜 진행하였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높은 정치적열의와 적극성을 가지고 경연에 참가할수 있도록 요강을 현실성있게 만드는데 품을 넣었으며 경연이 선수본위로 진행된다는가 경연에서 기계적으로 외우는것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였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해에도 직장, 작업반단위로 문답식학습경연을 여러차례 조직하여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기업소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깊이 새기도록 하였다.

당위원회에서는 출근길환영사업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유훈관철투쟁에로 고무추동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다.

출근길을 다그치는 종업원들을 당, 행정일군들이 기동예술선동대원들과 함께 환영해주는것은 지난 20여년간 변함없이 진행해온 사업이다. 당위원회에서는 그때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방송선전차로 소개하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떨쳐나섰다는 자각을 심장에 새기도록 하였다.

당의 령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이 실속있게 진행되는 과정에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게 되였다.

억세게 이어지는 결사관철의 전통

당위원회에서는 당정책결사관철을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린 결과이다.

김철의 산소열법용광로건설에 필요한 대상설비생산과제를 맡았을 때였다.

당위원회에서는 당, 행정일군들의 협의회를 열고 집행태책을 토의한데 기초하여 당일군들을 직장, 작업반들에 파견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로동자들과 함께 부분품가공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일하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태진혁지배인을 비롯한 행정일군들도 작업현장에서 로동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전투적으로 작전하고 지휘하였다.

김철의 산소열법용광로에서 쏟아져내리는 주철쇠물에는 당정책결사관철의 전통을 억세게 이어나가는 라남로동계급의 고귀한 땀도 깃들어있다.

지금 기업소에서는 새형의 능력이 큰 권양기제작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당에서 준 과업이 아무리 방대하고 처음 해보는 생소한것이라 해도 절대로 물러서거나 에돌지 않는 사람들, 시작도 대담하고 박력있게 떼고 마무리도 흠잡을데 없이 완벽하게 결속하는 그들의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이 라남땅에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경험은 당조직들이 당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 문제를 당사업의 주선으로 틀어쥐고 방법론있게 전개해나갈 때 비약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승표

신의주청년역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당사업의 주선으로 틀어쥐고

신의주청년역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에로 대중을 불러일으켜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지지도단위를 잘 꾸리고 빛내여나가는것은 당과 수령이 이룩한 업적을 고수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입니다.》

몇해전 어느날이였다.

김만석초급당위원장의 방에서는 오래동안 불이 꺼질줄 몰랐다. 역을 령도업적단위답게 훌륭히 꾸리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는중이였다.

당시 역에서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구내를 일신시킬 용이 큰 목표를 세웠었다.

분국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돌격대가 조직되고 꾸리기사업이 본격화되였다. 그런데 일판을 벌렸지만 일군들이 생각했던것처럼 일이 잘 진척되지 못했다.

자체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다. 조건이 어려운데 어떻게 그 방대한 목표를 수행해낼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일부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신심을 가지지 못하고있었다. 자기의 일터를 꾸리는 사업의 중요성을 새겨주고 자체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해낼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주는것이 중요하였다.

문제해결의 열쇠는 다름아닌 대중의 사상발동에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한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방법론을 깊이 연구하였다.

우선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훌륭히 꾸리는 사업부터 앞세우기로 하였다. 사상교양거점인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잘 꾸리는 과정을 통하여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당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 깊이 새겨안고 역을 현지지도단위답게 일신시키는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하려는 의도에서였다.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건설을 최단기간에 끝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였다. 자재를 비롯하여 제기되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이때 초급당위원장은 실천적모범으로 앞장에서 걸린 문제들을 풀어나갔다. 솔선 건설자재도 마련하였으며 장거리출장길도 다녀왔다. 이런 이신작칙은 역의 일군들을 각성시키고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는 말없는 정치사업이기도 하였다.

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모두의 관심이 높아지는 속에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이 짧은 기간에 꾸려졌다. 훌륭히 꾸려진 교양거점을 통하여 역에 깃든 어버이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새겨가는 당원들과 종업원들의 감회는 새로왔다. 영광의 일터에서 일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이 그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졌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대중의 혁명적열의가 높아지는데 맞게 전투목표를 더 높이 세우고 그것을 기한전에 끝내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역에서는 단 5일만에 1번높은홈바닥돌깔기 및 콩크리트포장을 끝냈으며 20일만에는 기다림칸의 구조를 변경시키고 안내원실, 휴게실, 애기어머니방, 도서실도 번듯하게 꾸려놓았다.

성과가 오를수록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종업원들이 주인된 립장에서 꾸리기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을 강도높이 벌려나갔다. 이에 고무된 종업원들은 자기의 힘이 제일이라는 자각을 깊이 간직하고 집단의 단합된 힘으로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갔다.

이 나날 역에서는 양묘장도 꾸려놓았으며 역을 수림화, 원림화하는 사업에서도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양어장도 건설하고 문화후생시설들도 번듯하게 꾸려놓았다.

하여 분국적으로 꾸리기사업에서 앞장선 단위로 되였으며 그 과정에 어버이수령님들의 현지지도단위로서의 영예를 빛내여나갈수 있게 되였다.

이곳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처럼 어버이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내밀 때 단위사업에서 큰 성과를 달성할수 있다.

본사기자 장철범

절절한 그리움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함흥제사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자욱이 어린 함흥제사공장이 몰라보게 달라지고있다. 새로 일떠선 문화회관이며 원래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는 작업장들과 함숙, 날마다 높아지는 명주실의 질…

이런 성과들의 밑바탕에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종업원들의 절절한 그리움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심장에 불을 달아주고 치밀한 작전과 지휘를 따라세운 초급당위원회의 힘있는 조직정치사업이 놓여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의 유훈의 뜻이 꽃펴나는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속에 수령님의 력사는 계속 흐르고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올해에 초급당위원회는 제조종합작업반을 본보기로 하여 직장, 작업반들의 면모를 완전히 일신시킬 목표를 세우고 초급당위원들에게 한개 단위씩 맡겨주었다. 현지지도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모든 직장을 제조직장(당시)처럼 잘 꾸리라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던것이다.

당세포들에 나간 초급당위원들은 공장꾸리기는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사업이라는것을 강조하면서 당원들이 선봉적역할을 하자고 호소하였다.

박혜숙지배인은 제조종합작업반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본보기로 잘 꾸리는 사업을 스스로 맡아나섰다. 작업반초급일군들을 만나 걸린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본 지배인은 휴게실의 옷장을 자체로 만들겠다는 창발적의견을 적극 지지해주면서 목재와 도색감을 해결해주었다. 그리고 작업반사무실에 콤퓨터와 책상도 새것으로 갖추어주어 짧은 기간에 면모가 일신되도록 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훌륭히 꾸려진 제조종합작업반에 대한 보여주기를 조직하였으며 그를 계기로 직장, 작업반들사이에 경쟁의 불을 걸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우리 공장, 우리 일터를 더 훌륭히 꾸리자!

종업원들의 열의는 하늘에 닿았다.

공무동력직장 초급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체의 힘으로 문화선전실을 새로 꾸밀 높은 목표를 세우고 달라붙었다. 생산지휘를 하는 바쁜 속에서도 수백리를 달려 세멘트를 해결해다주며 힘을 주는 기사장의 정치사업은 직장종업원들을 더욱 발동시켰다. 그들은 한주일만에 문화선전실을 번듯하게 꾸려놓았다.

부모없는 종업원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당부를 심장에 새긴 공장일군들은 함숙호실마다 온돌을 놓아주고 텔레비존도 새로 갖추어주었으며 종합오락실도 꾸려주었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종업원들의 그리움을 총폭발시켜 유훈의 뜻을 활짝 꽃피워나가는 초급당위원회의 힘있는 조직정치사업은 명주실의 질개선에서도 전환을 가져왔다.

언제인가 생산과 당세포의 당생활총화를 지도하던 온평이초급당위원장은 회의가 생산일면에만 치우치는 편향을 포착하였다. 기술중시를 떠나 생산장성을 생각할수 없고 더우기 명주실의 질을 세계적수준에 끌어올린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관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고 세포당원들에게 이야기해준 그는 이 문제를 초급당위원회에서 심각히 토론하였다.

그후 기술발전과가 새로 조직되고 기술력량이 보강되였으며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새로 꾸린 높은 목표를 세우고 달라붙었다. 생산지휘를 하는 바쁜 속에서도 수백리를 달려 세멘트를 해결해다주며 힘을 주는 기사장의 정치사업은 직장종업원들을 더욱 발동시켰다. 그들은 한주일만에 문화선전실을 번듯하게 꾸려놓았다.

언제인가 세멘트와 모래가 걸려 기술혁신과제수행이 진척되지 못할 때에도 그는 어려운 과업을 자신이 맡아나섰다. 통전기재가 부족하면 등짐으로 모래를 운반하고 세멘트가 부족하면 세멘트기지들에 달려나가 바닥에 흘린 세멘트를 모아들여서라도 당앞에 다진 결의목표를 기어이 수행하려는 그의 불같은 모습은 그대로 힘있는 정치사업이 되여 기술자, 기능공들을 분려일으켰다. 이렇게 이룩된 성과자료들을 제강에 담군 하였는데 강의의 실효는 대단히 컸다.

단위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그는 불끝는 전투현장들에 스스로 몸을 내대군 하였다. 그가 발휘한 헌신의 이야기를 다 하자면 끝이 없다.

통신대의 어리명의 부모없는 청년들의 결혼상을 마련해주는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 그것을 솔선 맡아안고 친부모의 심정으로 차려준 이야기, 한 종업원의 아들이 사경에 처했을 때 서슴없이 자기의 피를 뽑아주고 많은 영양식품을 마련해준 이야기…

이렇게 종업원들을 위해 고생도 많게 여기며 헌신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기에 종업원들이 《우리 학습강사》라고 친근하게 부르며 따르고있는것이다.

그렇다.

높은 실무적자질과 함께 종업원들을 아끼고 집단과 동지들을 위해 자기를 깡그리 불태울줄 아는 성품을 지닌 강춘복동무와 같은 당초급선전일군들이 있어 우리의 사상전지는 그토록 굳건한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조항별로 완벽하게 집행하자

회창군 신지동리당위원회 사업에서

회창군 신지동리가 몰라보게 변모되였다. 연혁소개실, 계급교양실이 훌륭히 꾸려지고 농업과학기술보급실과 진료소, 상점이 일떠섰으며 문화회관도 개건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누구라없이 성과에 만족해있던 지난해 11월 김양일리당위원장의 마음은 무거웠다. 일부 작업반의 지력이 높지 못했던것이다. 식량은 생산하여 말에 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에서 놓친 측면이 있음을 보여주고있었다.

며칠후에 열린 리당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집행함에 대한 문제가 심각히 토의되였다. 그중의 하나가 지력을 높이는것이였다.

리당위원회는 이 사업을 작업반, 분조별 사회주의경쟁을 벌리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주목되는 점은 경쟁을 사람들의 심리에 맞게 조직하여 일욕심을 높여주고 경쟁열기를 고조시킨것이다.

리당위원회는 농장원들이 량재를 늦추지 않고 유훈관철을 위한 사업에 떨쳐나서게 하지면 단위들사이의 경쟁을 더욱 신속있게 조직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되여 거름생산과 실어내기를 위한 작업반, 분조들사이의 사회주의경쟁이 조직되였다.

리당위원회는 일군들호상간의 경쟁심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작업반을 고정분담시키는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일군평가기준항목을 새롭게 하였다. 다시말하여 생산실적일면을 놓고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화선식정치사업정형과 걸린 문제를 풀어준 정형을 포함시켰다. 중요한것은 경쟁총화모임에 작업반, 분조장들뿐만아니라 담당한 일군들도 참가시킨것이다. 일군들을 분발시키기 위해서였다.

경쟁을 조직하는 목적은 모든 단위들이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게 하자는데 있다.

리당위원회는 일군들이 경쟁에서 뒤떨어진 단위들을 집중적으로 도와주어 다같이 직선주로에 서게 하기 위한 사업도 주동적으로 벌려나갔다.

지난 1월말 청년분조와 제4작업반의 실적이 처지고있을 때였다.

당, 행정일군들이 전투장에 나가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였다. 그것은 농장원들을 불러일으키는 말없는 정치사업이였다. 불과 3일동안에 수십t의 거름을 밭에 실어냈다. 농장은 지난 3월 군에서 조직한 거름생산과 실어내기를 위한 사회주의경쟁총화에서 1등을 했다.

리당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집행하기 위한 사업을 전형단위를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벌려나갔다.

리당위원회는 축산물생산에서 뒤떨어졌던 제3작업반의 축산토대를 갖추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가 이룩된데 맞게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보여주기사업을 현지에서 조직하였다. 이렇게 하니 유훈을 하나도 놓침없이 집행하게 되였으며 뒤떨어졌던 단위들이 앞선 단위들의 대렬에 들어서게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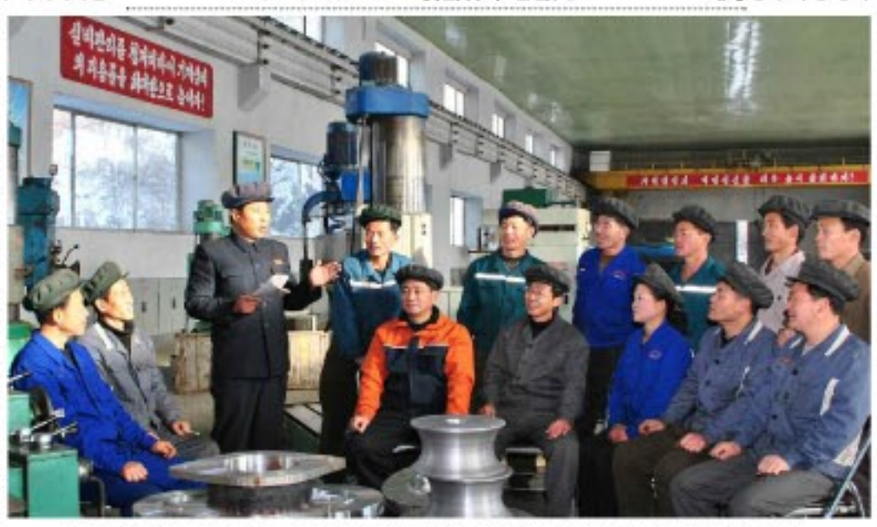
이 나날 농장은 농사와 산림복구, 온실남새생산, 양어 등 당정책관철에서도 선구자의 영예를 떨치게 되였다.

우리와 만난 리당일군은 말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은 백과전서적인 강령적지침입니다. 유훈을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철저히 집행해야 모든 일이 잘됩니다.》

유훈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당조직들이 견지해야 할 원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교훈적인 말이였다.

본사기자 손영희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정치사업을 적극 벌려간다. —평남배수리공장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모범학습강사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사상일군들의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높은 실력, 참신한 강의활동으로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적극 고무추동하여 당초급선전일군의 영예를 빛내이고있는 모범학습강사들을 아래에 소개한다.

소중한 부름—우리 학습강사

철도성통신대 교환중대 중대장 강춘복동무

강춘복동무의 30여년간의 학습강사활동에서의 특징은 헌신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실례가

있다.

한번은 그가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철저히 관철해나갈데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한적이 있었다. 최신과학기술성과자료들을 안받침하여 진행하였는데 예상외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지 못했다. 품을 들인데 비해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을 분석해보기 위해 그는 통신의 현대화가 추진되고있는 현장에 나갔다.

현실속에 뛰어들어 종업원들과 고락을 같이하는 과정에 자기 단위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였다. 바로 그것을 강의에 반영한다면 더 좋은 실효를 거둘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그의 뇌리를 쳤다.

그후 그는 통신현대화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조의 한 성원이 되였다. 기술혁신과제수행에서 걸린 문제들을 스스로 맡아안았다.

언제인가 세멘트와 모래가 걸려 기술혁신과제수행이 진척되지 못할 때에도 그는 어려운 과업을 자신이 맡아나섰다. 통전기재가 부족하면 등짐으로 모래를 운반하고 세멘트가 부족하면 세멘트기지들에 달려나가 바닥에 흘린 세멘트를 모아들여서라도 당앞에 다진 결의목표를 기어이 수행하려는 그의 불같은 모습은 그대로 힘있는 정치사업이 되여 기술자, 기능공들을 분려일으켰다. 이렇게 이룩된 성과자료들을 제강에 담군 하였는데 강의의 실효는 대단히 컸다.

단위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그는 불끝는 전투현장들에 스스로 몸을 내대군 하였다. 그가 발휘한 헌신의 이야기를 다 하자면 끝이 없다.

통신대의 어리명의 부모없는 청년들의 결혼상을 마련해주는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 그것을 솔선 맡아안고 친부모의 심정으로 차려준 이야기, 한 종업원의 아들이 사경에 처했을 때 서슴없이 자기의 피를 뽑아주고 많은 영양식품을 마련해준 이야기…

이렇게 종업원들을 위해 고생도 많게 여기며 헌신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기에 종업원들이 《우리 학습강사》라고 친근하게 부르며 따르고있는것이다.

그렇다.

높은 실무적자질과 함께 종업원들을 아끼고 집단과 동지들을 위해 자기를 깡그리 불태울줄 아는 성품을 지닌 강춘복동무와 같은 당초급선전일군들이 있어 우리의 사상전지는 그토록 굳건한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영광의 땅을 빛내이는 길에서

온성군 왕재산협동농장 작업반장 오광철동무

온성군 왕재산협동농장 작업반장 오광철동무의 지난 20여년간의 학습강사활동을 특징짓는것이 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는데 모든것을 지향시켜

나가는것이다.

오광철동무가 청년작업반 학습강사로 사업하던 때의 일이다.

어느날 저녁 그는 다음날에 진행할 강의를 준비하고있었다.

그런데 한 초급일군이 들어와 여러명의 이름을 쓰으며 농장원구실을 하기 힘들것 같다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작업반에 갓 배치된 청년들을 두고 하는 말이였다.

그것을 들으며 오광철동무는 청년들에게 농사일을 배워주기에 앞서 영광의 땅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부터 심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농장에 깃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적자료들을 깊이 연구하는 한편 위대한 수령님들을 직접 만나뵙고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일군들을 만나기 위해 밤잠을 잊고 뛰어다니며 풍부한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이튿날 진행된 강의의 실효는 컸다.

지난날 사람 못살 고장이던 자기 마을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크나큰 은정과 배려로 인민의 행복이 꽃펴나는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전변된데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감있는 자료들이 안받침된 강의가 청년들의 심금을 틀어잡았던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오광철동무가 느끼게 된것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어려차례나 모신 영광의 고장에서 일하는 농업근로자들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농장원대중을 이끌어주는것이 학습강사인 자신의 중요한 임무이라는것이였다.

이때부터 이것은 오광철동무의 사업준칙으로 되였다.

언제인가 알곡증산으로 사회주의를 만들데 대한 내용의 강의를 진행할 때에는 자기 고장에 찾아오시여 농사형편을 알아보시고 농장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내용을 뜨겁게 되새겨주어 농장원들의 증산열의를 높여주었으며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일데 대한 내용의 강의를 진행할 때에는 과학농법을 받아들여 다수확을 내고있는 령도업적단위들의 성과자료들을 적극 반영하여 작업반원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그는 학습강사활동의 매 공정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농장원들속에 더욱 깊이 인식시키고 알곡증산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전환시켜나갔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단위의 학습강사로서 자기의 책임감을 깊이 자각한 오광철동무의 실효성있는 강의는 작업반원들모두가 영광의 땅을 가꾸어가는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해마다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다.

글 및 사진 리춘식

과녁을 명중한 비결

강계공업대학 강좌장 김옥숙동무

30여년간 학습강사로 사업하고있는 김옥숙동무의 학습강사활동에서 특징적인것을 크게 두가지로 찾아볼수 있다.

우선 강의 전과정이 위대성

교양으로 일관되여있는것이다.

그는 절세의 위인들의 위대성교양자료들을 제강의 내용과 결부하여 하나라도 더 많이, 더 심도있게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있는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강좌장사업을 하면서 학습강사를 하자니 제일 긴장한것이 시간이였다. 하지만 그는 위대성교양에 필요한 풍부한 자료를 갖추기 위한 사업을 한시도 중단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위대성자료집, 명언해설집, 혁명전설, 혁명일화들을 묶은 자료집, 국제정세자료집, 속담집, 력사자료집, 노래집을 비롯하여 수십권에 달하는 자료집들을 만들어 강의실천에 구현하였다.

김옥숙동무의 강사활동에서 다음으로 특징적인것은 옳은 방법론을 찾아쥐고 강의에 적극 구현한것이다.

직관물을 통한 강의가 그 대표적실례이다. 그는 직관물에 학습제목과 함께 내용을 체계화하여 제시하여놓고 제강에 근거하여 원리적으로 알기 쉽게 해설한다. 이런 학습방법은 지난시기 강사가 학습제강만을 가지고 필기전달식으로 학습시키던것과는 달리 사람들이 제강의 체계와 내용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학습한 내용과 결부하여 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내용을 환히 꿰들도록 하는데서 좋은 방법으로 되고있다.

그는 또한 학습의 실효를 높이는데서 분답의 방법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자신부터 강의할 내용을 먼저 깊이 연구한데 기초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는 문제들과 그에 필요한 참고도서들을 학습반성원들에게 제시해주어 학습시키는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그런 다음 강의시작전에 질의응답의 방법으로 인식정형을 료해한다. 이 방법 역시 학습의 실효성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공간으로 되고있다.

이런 실례는 많다.

년도별에 따르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자료집을 만들어놓고 강의시작전에 그날의 혁명사적내용을 알려주고 강의를 진행한 사실, 혁명일화집과 명언해설집을 가지고 강의제목과 내용에 맞게 적중하게 반영하여 강의의 실효성을 높인 사실…

이 과정에 그는 강의의 당정책화, 원리화, 통속화를 실현함으로써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들과 우리 당의 불멸의 위대성을 더욱 깊이 새겨주었던것이다.

이처럼 강의 전과정을 위대성교양으로 일관시키고 그에 맞는 참신한 방법론을 구현한 바로 여기에 김옥숙동무의 강의가 과녁을 명중한 참신한 강의로 될수 있은 비결이 있는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사회주의선경을 보란듯이 펼쳐가는 훌륭한 투쟁기풍

철산군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사업에서 혁신을 일으켜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많이 일떠세우면 그만큼 강성국가의 기초가 튼튼히 다져지고 인민들의 행복의 터전이 훌륭히 마련되게 됩니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소식에 접한 철산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체의 힘으로 군의 면모를 일신시킨 성과에 토대하여 당의 문명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군꾸리기를 현장에서 지휘하는 군당책임일군의 얼굴에도, 승리의 신심드높이 군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하여 애국의 땀방울을 바쳐가고있는 근로자들의 얼굴마다에도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전략국가의 지위에 올려세우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고마움이 뜨겁게 어려있다.

최근 2년동안에만도 이들은 야외물놀이장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과 많은 살림집들을 일떠세웠다.

또한 근 20km의 철길을 표준철길수준으로 만든데 이어 도로를 기술개건하고 다리들을 보수하여 군의 면모를 일신시키였다.

이 성과의 밑바탕에는 당정책을 결사관철하기 위하여 대중의 앞장에서 만짐을 지고 헌신하는 군일군들의 전위적인 일본새가 놓여있다.

자기 힘을 믿으라

자기 힘에 대한 확신, 자기 군에서부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전로성을 올려나가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떨쳐나설 때 기적이 창조된다.

군당책임일군으로부터 군안의 근로자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한목소리로 하는 이 말속에는 참으로 귀중한 체험이 깃들어있다.

도로기술개건과 여러개의 다리보수를 하는 동시에 근 20km의 철길을 표준철길수준으로 만들던 과정을 놓고보자.

그때까지만 하여도 많은 사람들은 군에서 이런 공사를 한해사이에 해제낀다는것은 불가능한 일로 어기고있었다.

3년전 군당책임일군으로 사업하게 된 박인철동무는 당정책의 운명이 자기 어깨우에 지워져있다는 자각으로 마음이 무거워짐을 느꼈다. 더우기 그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것은 일부 일군들이 자기 힘을 믿지 못하고 제기된 과업을 우에 밀고 아래에 떠넘기는 식으로 일하고있는것이였다.

군당책임일군은 이런 일본새를 바로잡아주지 않고서는 방대한 일감을 기한전에 끝낼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이 사업을 종전처럼 회의실에서 비판교양하는 식이 아니라 일군들이 들끓는 현실속에서 실지체험을 통하여 뼈에 새기게 하는 방법을 찾아 실천에 옮기였다.

먼저 도로, 다리보수와 동시에 철길보수를 시작하였다.

목적이 있었다. 그것은 많은 로력과 품이 드는 공사들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군안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자기 힘을 확신하고 떨쳐나설 때 그 어떤 기적도 창조할수 있다는 신념을 안겨주자는데 있었다.

책임일군들은 우선 로력과 기계수단은 물론 선전선동수단들을 총동원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매 공장, 기업소단위로 작업조직을 물샐틈없이 짜고들었다. 특히 경쟁을 조직하고 그 앞장에 중요대상을 맡은 군급기관 일군들이 서도록 하였다. 그리고 종업원이 적은 단위, 녀성이 많은 단위들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어 실적을 올리도록 매밀어주었다.

력량이 약한 단위들이 기세차게 달려나가자 공사장들의 분위기는 급변하였다. 도로, 다리, 철길보수공사장의 어느 단위에서나 제힘을 믿고 떨쳐나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현일실적을 올리였다.

어렵고 힘든 일이 제기될 때마다 이신작칙으로 대중을 이끌어 돌파구를 열어나가는것이 이곳 일군들의 체질화된 사업기풍이다.

자재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책임일군들은 우를 쳐다보며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다. 필요하다면 자재인수원이 되여서라도 기어이 해결할 각오를 안고 분발해나선 책임일군들의 피타는 노력으로 공사장에는 세멘트, 철근을 비롯한 자재들이 제때에 보장되여갔다.

그들의 실천적모범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자력갱생이 제일이라는 신념을 더욱 굳혀주고 승리의 신심드높이 뛰고 또 뛰게 해준 원동력으로 되였다.

자기 힘을 믿으면 강자가 된다. 대중의 정신력은 총폭발되였다. 철길, 도로, 다리보수전투장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온 작업장을 들었다놓는 경제선동의 북소리, 땀을 철철 흘리며 만짐을 지고 달리는 일군들, 함마로 바위들을 쨍쨍 까내며 기세를 올리는 근로자들… 작업장은 말그대로 격전장을 방불케 하였다.

일군들은 경험이 쌓일수록 신심에 넘쳐 도로, 다리보수에 쓸 세멘트는 어느 단위가 운반하고 물재운반은 어느 기업소가 하며 어느 대상에는 기계수단을 총집중하여 며칠동안에 끝낸다는 식으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갔다. 하루가 다르게 실적이 올랐다.

군당책임일군은 이것을 계속 혁신에로 대중을 추동하기 위한 좋은 계기로 삼았다.

그리하여 훌륭히 보수된 철길, 도로구간과 다리에서 보여주기 사업이 조직진행되였다.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힘에 대한 믿음, 자강력이 제일이라는것을 뼈에 쪼아박고 군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결과 군에서는 근 20km구간의 철길로반에 대한 성토공사를 진행하고 많은 땐자갈을 보충하면서 표준철길수준으로 만들었다.

또한 군소재지의 기본도로와 자전거길들에 콩크리트포장을 하고 수천그루의 가로수를 심어 그 면모를 일신시키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래일을 위해 만짐을 지자

군책임일군들은 군문화회관을 개건할 대담한 목표를 세웠다.

그들은 잘 꾸려졌다고 하는 다른 군들의 문화회관을 돌아보고 특색있는것을 자기 군의 특성에 맞게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건설계획을 높이 세우고 일군들부터 앞장에서 세멘트와 강재를 비롯한 자재보장사업을 선행시키게 하였다. 대중과 함께 밤이 새도록 혼합물도 이기고 부족되는 자재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 일군들의 모습은 군안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큰 힘을 주었다.

결과 군안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군문화회관을 짧은 기간에 번듯하게 개건하였다. 2층으로 된 군문화회관이 예술공연을 할수 있게 잘 꾸려진것은 물론 앞에는 번듯하게 로라스케트장까지 생겨났다.

군책임일군들은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을 련이어 건설하기 위한 보다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1만여㎡의 면적에 특색있는 불장식까지 한 야외물놀이장을 건설하던 때였다.

사실 로력과 자금이 긴장한 형편에서 이런 방대한 야외물놀이장을 건설한다는것은 결코 헐한 일이 아니였다. 더우기 난문제로 제기된것은 야외물놀이장의 수천m의 구간에 불장식을 하는 것이였다. 우리 군의 실정에서 이렇게 크고 종합적인 물놀이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고 하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

그때 군책임일군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꽃피우기 위해 우리가 만짐을 지고 몸이 열조각, 백조각이 나도 기어이 건설하자고 일군들을 고무하였다.

우리가 만짐을 지고 뛰면 더 좋은 래일이 앞당겨진다. 일군들은 이런 관점을 뼈에 새기고 우리가 고생하면 후대들이 락을 누리게 된다는 각오를 안고 떨쳐나섰다. 여기에 고무된 근로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리였다. 이렇게 되여 야외물놀이장건설은 짧은 기간에 완공되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이들은 군안의 여러 학교건물들을 개건하고 100여세대의 살림집들을 번듯하게 새로 일떠세웠다. 또한 온덕천을 비롯한 근 20개의 공공건물들에 타일을 붙이고 가로등과 불장식등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밤풍경을 펼쳐놓았다. 이 공사들은 참으로 방대하고 아름찼다.

그러나 군안의 모든 일군들은 자기가 고생할수록 인민의 웃음소리 높아진다는 자각을 안고 대상건설에서 걸린 문제들을 한가지씩 맡고 대중의 앞장에서 땀흘리며 뛰였다.

일군들이 전투장의 한복판에 뛰여들어 헌신하는 투쟁기풍은 군안의 근로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말없는 정치사업으로 되였다.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의 사상공세속에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사기가 비할바없이 높아졌고 군에서 내세운 목표는 하나씩 압심있게 실현되였다.

군에서는 이처럼 짧은 기간에 많은 창조물을 일떠세워 군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근로자들에게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에서 전환을 일으켰다.

올해에도 일군들은 여러 호동의 다층살림집과 어린이교통공원을 일떠세워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완강한 투쟁을 전개해나가고있다.

사회주의선경을 펼쳐가는 위력한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당정책의 운명이 자기 어깨우에 지워져있다는 자각과 자기 군을 자기 힘으로 꾸릴 각오로 래일을 위해 만짐을 지고 뛰고 또 뛰는 일군들의 혁명적인 일본새이다.

철산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이 바라는대로 자기 고장을 제힘으로 아름답게 꾸려갈 일념안고 오늘도 창조와 혁신의 한길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본사기자 김 강 철

치밀한 작전, 완강한 실천

대성구역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총대로 우리 혁명을 개척하고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군사의 영재이시다.》

대성구역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적인 혁명무력건설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적극 발동하여

구역당위원회에서는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조직동원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무력건설업적을 깊이 새겨주고있다.

얼마전 구역당위원회에서는 선전선동부 일군들의 모임이 열리였다.

혁명무력건설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이미 구역당위원회에서는 지난해의 전승절을 비롯한 주요기념일들에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통한 위대성선전에 선전선동력량과 수단들을 적극 동원하여 교양의 실효를 높인 경험을 가지고있었다.

그 대표적실례가 구역안의 전쟁로병들로 기동예술선동대를 꾸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예술소품공연을 펼쳐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군건설업적을 깊이 체득시킨것이였다.

이밖에도 주요장소들에 표어와 직관물을 게시하여놓고 방송선전활동을 벌리였으며 구역안의 당, 행정책임일군들과 고급중학교 졸업반학생들로 접세위인들의 불멸의 군건설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혁명사적지에 대한 답사행군도 의의있게 조직하였다.

이런 성과에 토대하여 올해에도 구역당위원회에서는 주체적인 혁명무력건설에 쌓아올리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교양에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적극 동원하기로 하였던것이다.

구역당위원회에서는 당초급 선전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는데도 큰 힘을 넣었다.

얼마전 구역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군건설업적을 내용으로 하는 선동활동에 대한 보여주기가 진행되였다. 평양고등교육도서인쇄공장 협지작업반 모범선동원 최용속동무가 출연한 이날의 보여주기에 구역안의 수백명의 선동원들이 참가하였다.

그날 보여주기를 통하여 주체의 혁명무력건설에 쌓아올리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깊이 새긴 구역안의 많은 선동원들은 맡은 초소들에 나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선전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리였다.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적극 발동하여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속에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군건설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을 짜고들고있는 구역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은 좋은 결실을 맺고있다.

실효를 거둔 제대군인가족예술소품공연

사상교양사업에서 보다 큰 실효를 거두자면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옳게 조직동원하는것과 함께 실효성있는 방법론을 적극 찾아쥐는것이 중요하다.

구역안의 제대군인가족들이 출연한 예술소품공연이 그 실례로 된다.

구역당위원회가 제대군인가족들로 예술소품공연을 특색있게 펼치게 된데는 사연이 있다.

얼마전 구역당위원회책임일군은 사상사업작전과 관련한 정형을 료해하며 깊은 생각에 잠기였다. 그만하면 혁신적인 안들이 반영되여있었다.

호뭇한 마음으로 사업계획의 내용을 새겨보던 구역당책임일군의 머리속에 번쩍 떠오르는 하나의 생각이 있었다.

제대군인가족들로 예술소품공연을 진행하면 어떻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제대군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노래도 부르고 마음속결의도 다지게 한다면 그들의 긍지감을 더 높여주고 제대군인들이 당정책관철의 기수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사업의 중요한 공간으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지난 시기 구역당위원회에서는 구역안의 제대군인들로 기동예술선동대를 꾸고 전승절을 비롯한 기념일을 계기로 다채로운 예술소품공연을 펼친적이 있었다.

군사복무시절의 군복을 입고 가슴에 훈장을 번쩍이는 제대군인들의 힘찬 노래소리는 그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조국수호정신과 멸적의 기상을 더욱 억척같이 벼려주는 힘있는 교양이였다.

그 경험을 살려 이번에는 제대군인가족들이 출연한다면 심효가 더 클것이라고 책임일군은 생각하였다. 이렇게 되여 구역당위원회의 사업계획에 제대군인가족예술소품공연이 반영되게 된것이다.

그 공연이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군건설업적을 깊이 새겨주는 참신한 교양사업으로 되였다는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적극 동원하고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는 참신한 방법론을 구현하여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가슴속에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체득시키고있는 구역당위원회의 혁신적인 사업기풍은 본받을만 하다.

본사기자 최 영 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민주꽁고대학생 및 학생련맹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선인민혁명군창건 86돐에 즈음하여 민주꽁고대학생 및 학생련맹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24일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은 민주꽁고청년들과 영원히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보셔져있었다.

혁신의 동음을 지켜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사람들속에는 신의주신발공장 프레스직장 보수작업반 반장 김정철동무도 있다.

직장의 설비들은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높이 받들고 공장의 로동계급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제작한것들이다.

오늘도 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는 그 설비들에는 김정철동무의 고심어린 노력이 깃들어있다. 그는 피타는 사색과 탐구로 설비들의 가동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 설비의 수명을 늘이였으며 그 나날 수많은 창의고안증서들도 수여받았다.

지난해 공장의 수많은 로동자들이 혁신의 자랑안고 축하의 꽃다발을 받을수 있은 밑바탕에는 누가 알아주건말건 설비보수에 전념해온 그의 성실한 노력이 뜨겁게 슴배여있다.

로농통신원 리 은 중

중국국제우호련락회대표단 우의탑에 화환 진정

주신정 부비서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국제우호련락회대표단이 24일 우의탑에 화환을 진정하였다.

우의탑에 중국국제우호련락회대표단의 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선전선에 참전하여 용감히 싸운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한 다음 우의탑을 돌아보았다.

단장은 감상록에 《혁명선렬들을 잊지 말고 중조친선을 계승하자》라는 글을 남기였다.

인도네시아대사관 성원들 조국해방전쟁사적지 참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인 인도네시아방문 53돐에 즈음하여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23일 조국해방전쟁사적지를 참관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령활무쌍한 전략전술로 미제침략자들을 서산락일의 운명에 몰아넣으신데 대해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화의 나날 이곳에서 선군령장의 담력과 배짱을 키워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사적지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참관을 마치고 밤방 히엔드라 스또 특명전권대사는 감상록에 글을 남기였다.

이날 대사관성원들은 3대혁명전시관 전자공업관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치료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회를 짜고든다. —함경북도인민병원에서— 본사기자 적음

인민들이 좋아한다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타고 련못동에서 평양역까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는 인민이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입니다.》

화창한 4월의 봄날 수도의 풍경을 더욱 이채롭게 해주며 새형의 무궤도전차가 기운차게 달린다.

오가는 길손들도 정답게 바라보고 나어린 소년단원들도 손지어 반기는 새형의 무궤도전차, 며칠전 저녁 우리는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리용하며 인민들이 정말 좋아한다는 수도려객운수무분의 한 일군의 이야기를 전해듣고 인민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싶어 거리에 나섰다.

되근길에 오른 사람들로 붐비는 3대혁명전시관앞 정류소, 고르로운 동음과 함께 정류소를 가까이하는 무궤도전차를 바라보던 손님들속에서 불쑥 이런 말이 튀여나왔다.

《새 무궤도전차다. —》

누구라 할것없이 얼굴에 웃음을 함뿍 담고 새 무궤도전차를 맞이했다.

전차가 미남자처럼 참 잘 생겼다는 한 로인의 말을 들으며 사람들은 전차에 오를념을 않고 호기심이 가득한 시선으로 전차를 살피고 또 살피였다.

련못동—평양역이라고 쓴 전광판의 로선표식이며 세련미가 나게 새조화를 한 전차의 동체, 나이지숙한 한 녀인은 차바퀴를 가리키며 이게 우리가 만든것인가고 누구에게라없이 물었다.

우리의것에 대한 긍지를 새기며 사람들 누구나가 기뻐했다.

문득 《어서 오르십시오.》라는 운전사의 음성이 확성기를 통해 전차안에 울렸다. 그제서야 손님들은 전차에 올랐다. 손님들이 타는 감탄은 전차안에서도 끊임없이 울려나왔다. 문득 누군가 웨치다싶이 말하였다.

《우리 원수님께서 타보신 무궤도전차요.》

그 말에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운전석옆에 씌여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타보신 무궤도전차라는 글발에 가멎었고 전차안에는 일순 감격의 파도가 일었다.

바로 몇달전, 수도의 거리에 정적이 깃든 늦은 밤 우리 원수님께서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타보시기 위해 나오시지 않았던가.

새 무궤도전차와 더불어 꽃펴난 우리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자욱을 더듬는듯 사람들은 이윽토록 말이 없었다.

잠시후 절절하게 울리는 운전사의 목소리…

《그날은 겨울바람이 기승을 부리던 추운 날이였습니다. 깊은 밤 우리 원수님께서 이 전차에 오르실줄이야…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을 진정할수 없습니다.》

몇해전 인민군대에서 제대되여 수도려객운수무분의 운전사가 된 그는 평범한 로동자의 자식이다. 그런 그가 뜻밖에도 새 무궤도전차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게 될줄이야. 꿈만 같던 그 시각을 소중히 안고 사는 장남혁동무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굽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차창너머로 흘러가는 려명거리와 개선거리, 창전거리의 선경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날의 우리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그려보았다.

행복의 요람속에 인민을 재우시고 이 밤도 사랑의 길 떠나시는 수령님이라는 노래가 새형의 무궤도전차의 동음과 더불어 수도의 거리에 또다시 울리는듯싶어 우리 가슴도 격정으로 끓어번졌다.

인민들이 좋아하게 색을 좀 더 곱게 하라고 따뜻이 이르키도 하시고 의장품 하나하나를 인민들이 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인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잘 만들어야 한다고, 운전사가 손님들과 호흡하면서 봉사성과 친절성을 높이도록 친히 운전석의 마이크위치까지 잡아주신 우리 원수님,

이런 생각에 잠겨 승엄한 감정에 휩싸여있는데 우리가 탄 전차가 어느덧 평양대극장앞 정류소에 이르렀다.

목적지까지 온 손님들도 선뜻 내려서기를 저어하며 몇번이고 운전사에게 손을 흔들었다. 차장의 손을 잡고 말은 일을 더 잘하겠다고 진정을 터놓는 이름모를 인민보안원의 모습도 보였다.

우리 원수님 사랑에 보답할 결심을 굳게 다지는 우리 인민은 얼마나 좋은 인민인가.

새로 오른 손님들도 소감을 터놓으며 좋아했다. 한 손님은 운전석에까지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요전번 우리 아들애가 새 차를 타고 만화영화 〈소년장수〉를 봤다나요. 그러면서 새 차가 멋있어서 동무들과 로선을 꼬박 다 돌았다더군요.》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에 다닌다는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역시 우리 힘, 우리 기술이 제일이라고 덧붙였다. 지하에서는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멋진 이지하전동차가 달리고 하늘에서는 인민의 분명을 노래하며 유람비행기가 날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는데 오늘은 또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계급의 힘과 지혜의 산물인 새형의 무궤도전차가 수도의 거리를 누비고있으니 날로 활기에 넘치고 약동하는 우리의 생활은 얼마나 좋은가고 그는 말했다.

모든것이 우리것이여서 좋고 우리 인민의 감정과 취미에 맞아 더없이 친근하고 정이 든다는 인민들의 목소리, 좋아하는 인민들의 모습을 우리 원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라 하는 생각에 우리는 목이 막 메여옴을 금할수 없었다.

어느덧 전차는 로선의 종점인 평양역주변에 이르렀다. 우리 원수님 사랑어린 새형의 무궤도전차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퇴근길을 이어가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은 깊어만 갔다.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타고 련못동에서 평양역까지,

그 동승길은 우리에게 우리 당의 인민사랑이 얼마나 열렬하며 이 땅에서 울리는 로동당만세,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어째서 그리도 뜨거운가를 다시금 가슴깊이 절감하게 하였다.

불밝은 수도의 거리를 이채롭게 장식하며 우리 인민의 생활속에 소중히 깃든 새형의 무궤도전차, 즐지어 달리는 전차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아뢰였다.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들이 좋아합니다!

본사기자 오 은 별

수필 믿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총대로 우리 혁명을 개척하고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군사의 영재이시다.》

대성구역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적인 혁명무력건설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적극 발동하여

구역당위원회에서는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조직동원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무력건설업적을 깊이 새겨주고있다.

얼마전 구역당위원회에서는 선전선동부 일군들의 모임이 열리였다.

혁명무력건설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이미 구역당위원회에서는 지난해의 전승절을 비롯한 주요기념일에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통한 위대성선전에 선전선동력량과 수단들을 적극 동원하여 교양의 실효를 높인 경험을 가지고있었다.

그 대표적실례가 구역안의 전쟁로병들로 기동예술선동대를 꾸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예술소품공연을 펼쳐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군건설업적을 깊이 체득시킨것이였다.

이밖에도 주요장소들에 표어와 직관물을 게시하여놓고 방송선전활동을 벌리였으며 구역안의 당, 행정책임일군들과 고급중학교 졸업반학생들로 접세위인들의 불멸의 군건설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혁명사적지에 대한 답사행군도 의의있게 조직하였다.

이런 성과에 토대하여 올해에도 구역당위원회에서는 주체적인 혁명무력건설에 쌓아올리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교양에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적극 동원하기로 하였던것이다.

구역당위원회에서는 당초급 선전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는데도 큰 힘을 넣었다.

얼마전 구역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군건설업적을 내용으로 하는 선동활동에 대한 보여주기가 진행되였다. 평양고등교육도서인쇄공장 협지작업반 모범선동원 최용속동무가 출연한 이날의 보여주기에 구역안의 수백명의 선동원들이 참가하였다.

그날 보여주기를 통하여 주체의 혁명무력건설에 쌓아올리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깊이 새긴 구역안의 많은 선동원들은 맡은 초소들에 나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선전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리였다.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적극 발동하여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속에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군건설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을 짜고들고있는 구역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은 좋은 결실을 맺고있다.

심효를 거둔 제대군인가족예술소품공연

사상교양사업에서 보다 큰 실효를 거두자면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옳게 조직동원하는것과 함께 실효성있는 방법론을 적극 찾아쥐는것이 중요하다.

구역안의 제대군인가족들이 출연한 예술소품공연이 그 실례로 된다.

구역당위원회가 제대군인가족들로 예술소품공연을 특색있게 펼치게 된데는 사연이 있다.

얼마전 구역당위원회책임일군은 사상사업작전과 관련한 정형을 료해하며 깊은 생각에 잠기였다. 그만하면 혁신적인 안들이 반영되여있었다.

호뭇한 마음으로 사업계획의 내용을 새겨보던 구역당책임일군의 머리속에 번쩍 떠오르는 하나의 생각이 있었다.

제대군인가족들로 예술소품공연을 진행하면 어떻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제대군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노래도 부르고 마음속결의도 다지게 한다면 그들의 긍지감을 더 높여주고 제대군인들이 당정책관철의 기수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사업의 중요한 공간으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지난 시기 구역당위원회에서는 구역안의 제대군인들로 기동예술선동대를 꾸고 전승절을 비롯한 기념일을 계기로 다채로운 예술소품공연을 펼친적이 있었다.

군사복무시절의 군복을 입고 가슴에 훈장을 번쩍이는 제대군인들의 힘찬 노래소리는 그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조국수호정신과 멸적의 기상을 더욱 억척같이 벼려주는 힘있는 교양이였다.

그 경험을 살려 이번에는 제대군인가족들이 출연한다면 심효가 더 클것이라고 책임일군은 생각하였다. 이렇게 되여 구역당위원회의 사업계획에 제대군인가족예술소품공연이 반영되게 된것이다.

그 공연이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군건설업적을 깊이 새겨주는 참신한 교양사업으로 되였다는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적극 동원하고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는 참신한 방법론을 구현하여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가슴속에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체득시키고있는 구역당위원회의 혁신적인 사업기풍은 본받을만 하다.

본사기자 최 영 길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최후승리를 이룩할 철석의 신념

사회주의조선의 강대성의 원천

백두의 천출명장을 높이 모신 내 조국에는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서도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것이 있다.

조국수호전에서나 사회주의건설에서나 군대와 인민이 한전호에서 어깨겯고 생사를 함께 해나가는 우리 조국의 위대한 힘—군민대단결, 이것은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를 떠받들고있는 밑뿌리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초석이며 강성국가건설의 천하지대본입니다.》

돌이켜보면 최근년간 우리 조국에서 련이어 일어난 눈부신 기적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군민대단결, 군민협동작전의 자랑찬 산물이였다.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려명거리…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으며 솟구쳐오른 그 하나하나의 사회주의세부들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새로운 조선속도, 만리마속도를 창조해나가는 천만군민의 강용한 기상과 고귀한 애국충정의 땀방울이 력력히 어려있다.

군대는 인민을 위하여, 인민은 군대를 위하여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서슴없이 바치며 사회주의조선의 위용을 떨치던 나날에 이 땅에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기적창조의 력사가 아로새겨졌고 군민대단결의 아름다운 서사시가 래여났던가.

큰물피해를 혹심하게 입은 선봉지구가 다시 일어서자면 몇해가 걸릴지 모르겠다고 하며 황급히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다시 나온 한 외국인기업가가 우후죽순처럼 일떠서는 새 집들과 새 마을을 보고 머리 고개를 들어보자.

조선의 군대가 미국도 떠는 대단한 군대라고 했는데 오늘 내 눈으로 진짜 보았다. 재해지역에 군대들이 가는것은 많이 보았지만 조선의 인민군대처럼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천지개벽을 일으키는것은 처음 본다. 세상에 이런 군대는 없을것이다. 조선은 정말 센 나라이다. …

하다면 우리 인민군대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인민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선시에 와서 오래전부터 정영활동을 해온 한 외국인녀성이 진심으로 감복하여 한 말이 있다.

온밤 비가 쏟아지는 속에서 큰물을 피해 오는 조선사람들을 잠시 우리 건물에 들어와있게 했댔는데 전 깜짝 놀랐습니다. 가산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어른이건 아이이건 가슴에 꼭 안고 있는것이 있어서 무엇인가고 물었더니 조선의 위대한 령도자들의 초상화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같으면 돈이나 물건부터 건지고 제 목숨부터 생각했을것인데 이런 깨끗한 인민들을 처음 봅니다. …

이런 군대와 인민이 힘을 합쳐 못해낼 일이 무엇이고 이기지 못할 고난이 어디에 있으랴.

시련이 겹쌓일수록 더욱 굳건해지고 더 높이 발휘되는 군민대단결의 위력은 조국의 북변땅에서 남김없이 폭발되였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피해지역 인민들을 위해 뜬눈으로 새날을 맞이하는 인민군병사들을 찾아 무산군의 한 할머니가 풋강냉이 한소랭이를 안고왔다. 손자, 손녀벌이 되는 애어린 병사들에게 자기 손으로 가꾼 터밭의 강냉이를 조금이라도 맛보이고싶었던것이다. 하지만 부대지휘관들은 그의 등을 떠밀어보냈다. 할머니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야전현장치료대문앞에 누구도 모르게 풋강냉이소랭이를 가져다 놓았다.

그러나 할머니가 기쁨에 넘쳐 집으로 돌아오던 그 시각 부대에서는 풋강냉이 주인을 찾기 위한 지휘관들의 긴급협의회가 진행되였다. 며칠만에야 주인공을 찾아낸 부대의 지휘관들은 할머니가 놓고간 풋강냉이의 량보다 더 많은 강냉이를 안고 할머니를 찾아왔다.

《이 늙은이의 진정을 그렇게도 받아줄수 없단 말인가.》

피해지역의 물과 공기만을 마시면 된다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앞에 할머니가 무슨 말을 더 할수 있었으랴.

험한 산길을 에돌아 군인들이 일하는 건설장들에 원호물자들을 무묵히 쌓아놓고 소문없이 돌아왔지만 다음날엔 병사들이 그것을 들고 기어이 주인을 찾아와 돌려주는 모습이 인민들의 눈물을 자아내는 속에 주인없는 원호물자들이 생겨나 일군들이 골머리를 앓았다.

그 나날에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뿌리내린 두만강연안에서는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이 일어나 6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장쾌한 승전로성이 허겁으르게 되였다.

지난해 3월 려명거리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북부피해복구전투로 건설을 석달이나 중지하였는데도 벌써 완공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만리마시대의 숨결이 력박치는 려명거리건설장을 돌아보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이 얼마나 무궁무진한가를 다시금 강렬하게 절감하게 되였다고, 려명거리건설에서 이룩되고있는 자랑스러운 성과들은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무조건 관철하는것을 제질화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완강한 공격기질, 한계를 모르는 무한대한 정신력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만 계시면 행복도 오고 기적도 일어나며 세상천지가 뒤집혀도 우리의 보금자리, 사회주의 내 조국은 끄떡없다는 확고부동한 신념이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간직되였기에 백무기보다 더 위력한 우리의 군민대단결의 힘을 원쑤들은 당할수 없었다.

당의 부름이라면 불불도 두려움없이 떨쳐나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언제나 한모습이였으며 군민의 일심단결은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을 크나큰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올수 있게 한 근본원천이였다.

세상에 나라마다 군대가 있고 인민이 있지만 전군, 전민이 하나의 전우, 하나의 동지가 되여 자기 령도자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철사울위의 성새로 뭉쳐진 이런 불패의 강군, 위대한 인민은 찾아볼수 없을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더욱 굳게 다져주시는 우리의 군민대단결이 있는 한 백전백승은 영원히 조선의것이다.

본사기자 조 향 선

공민의 본분을 지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체 인민이 인민군대를 친혈육처럼 사랑하고 성심성의로 원호하는것은 결국 자기 아들딸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는것입니다.》

지난 2월 뜻깊은 건군절의 아침이였다.

룡천시 룡평동사무소의 앞마당은 원호물자들을 안고 찾아온 사람들로 붐비고있었다.

건군절을 맞으며 동사무소에서 인민군군인들에게 원호물자를 보낸다는것을 알고 동안의 주민들이 떨쳐나선것이다.

누가 알려주었기에 이렇게 다들 왔는가고 하는 동사무장 양봉희동무의 말에 주민들은 약속이나 한듯 입을 열었다.

《자식들을 위한 일을 누가 시켜서 하는 부모도 있습니까. 스스로 찾아하지. …》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즐거운 미소가 피여올랐다. 그날 룡평동의 일군들과 주민들은 성의껏 준비한 많은 원호물자를 인민군군인들에게 보내주었다.

룡평동의 일군들과 주민들은 지난 시기 원군을 공민의 최대의 영예로, 애국으로 여기고 원군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였다. 이 사업의 앞장에는 애국자가정, 원군집으로 불리우는 43인민반 인옥순동무와 그의 가족들이 서있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삼복철의 찌는듯 한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인민군부대들을 시찰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소식이 련이어 전해지던 그때 인옥순동무와 그의 남편의 생각은 깊었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키시려 철령과 오성산의 높고 험한 령길을 넘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로고가 뜨겁게 안겨왔다.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보폭에 발맞추어 우리도 전선길을 걷자. 원군길은 우리 장군님을 따르는 길이다.

이런 결심과 각오를 안고 그들은 원군의 길에 나섰다. 집에서 기른 집짐승들과 성의껏 마련한 원호물자를 안고 그들이 이어간 원군길.

결코 남보다 살림이 넉넉해서 걷는 길이 아니였다.

난치의 병으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아들때문에 속태우며 지새운 밤이 그 얼마인지 모른다.

하지만 가정의 운명도 미래도 조국보위와 잇닿아있기에 그들은 괴로움도 힘겨움도 강잉히 이겨내면서 원군의 길을 꿋꿋이 이어갔다.

사회주의대건설장들에 찾아가 원호물자도 안겨주고 경제선동으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들의 모습은 군인들의 눈가에 고향집친부모의 모습으로 소중히 안겨들었다.

인민군군인들을 위해 아낌없는 지성을 바쳐가던 나날에 인옥순동무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어린 감사를 받아안는 영광을 지니였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그들을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시였다.

원군을 공민의 의무이기 전에 량심으로, 의리로 간직하고 애국지성을 바쳐가는 그들을 본받아 룡평동의 많은 주민들이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하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지난해에도 이곳 주민들은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일념밑에 사회주의대건설전투장들에서 위훈을 떨쳐가고있는 미더운 인민군군인들에게 많은 원호물자를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룡평동의 일군들과 주민들은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원군은 친자식들을 위한 일이며 조국보위이라고.

그들이 걷는 원군길에는 이런 뜨거운 마음이 깃들어있다.

그 무슨 대가나 정가를 바라지 않고 진정을 다 바치는것이 조국을 받드는 공민의 자세이다.

이런 인민이 있어 우리 군대가 강하고 우리 조국이 무적필승인것이다.

본사기자 조 경 철

가정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정주시 대송리 24인민반 리상철동무의 가정

얼마전 정주시 대송리 24인민반에 살고있는 리상철동무의 가정에 경사가 났다.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운 맏딸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이 고향에 전해졌던것이다.

리상철, 정명옥부부가 다니는 직장의 일군들과 이웃들이 찾아와 자기 집일처럼 기뻐하며 축하해주었다.

감탄과 부러움속에 기념사진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리상철, 정명옥부부의 가슴은 흥대병사의 부모가 된 긍지와 행복감으로 한껏 부풀어올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보위에 최대의 애국이 있습니다.》

몇해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였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그날 리상철동무의 집에서는 밤깊도록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여보, 오늘의 이 크나큰 경사에 접하고보니 만딸인 저 미란이를 경애하는 원수님의 병사로 내세우고싶구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고록에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는것은 원군정신의 최고표현이라고 교시하시지 않았소.》

《어쩌면 저와 꼭같은 생각을 했어요. 미란이뿐만아니라 금옥이와 금별이도 훌륭히 키워 조국앞에 내세우자요.》

흥대가정이 되려는 이들부부의 꿈은 이렇게 움터났다.

그날부터 리상철, 정명옥부부는 자식들이 공부도 잘하고 조직생활도 잘하도록 요구성을 더욱 높이였다. 그리고 자신들부터가 일터에서 혁신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부모의 이러한 노력은 자식들의 성장에 좋은 밑거름이 되였다.

그 이듬해 맏딸 미란이가 최우등의 성적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조국보위초소로 떠나갔고 3년후에는 둘째딸 금옥이가 언니의 뒤를 이어 혁명의 군복을 입었다.

딸자식들은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경쟁적으로 기쁜 소식들을 보내여왔다.

미란이와 금옥이가 복무하는 초소들에서 보내여오는 감사편지와 영예사진들은 리상철, 정명옥부부의 둘도 없는 기쁨이고 자랑이였다.

그런데 지난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건설부문 열성자들과 함께 찍으신 사랑의 기념사진속에 맏딸 미란이의 장한 모습도 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져올줄 꿈엔들 생각이나 했으랴.

리상철동무와 정명옥동무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혁명활동보도가 실린 신문을 보고 또 보며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하게 되였다.

아버지, 어머니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고급중학교졸업반 학생인 막내딸 금별이도 언니들처럼 흥대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충정다해 받들어나갈 맹세를 굳게 다지였다.

《이제 너까지 총을 잡고 초소에 서게 되면 우리 가정이 조국앞에 떳떳한 가정으로 되겠구나.》

…

맏딸 미란이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을 집벽면에 정중히 모시며 리상철동무와 정명옥동무는 생각하였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가정의 행복이 또 어디 있으랴.

애들아,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너희들이 군사복무를 더 잘하여 흥대가정의 영예를 계속 빛내여가기를 바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 찍은 영광의 기념사진과 자식들의 조선인민군입대증을 그 어떤 재부와도 비길수 없는 제일가보로 여기고있는 이런 흥대가정들이 많기에 우리 조국이 굳건한것 아니랴.

본사기자 정 영 철

조양땅인민들의 추억

우리 인민군대가 제일

지금으로부터 6년전 인민군부대들에 혹심한 자연재해를 입은 조양탄광지구를 복구할데 대한 긴급명령이 하달되였다.

여러 인민군부대들이 피해복구현장으로 출동하였다.

조양땅을 카까이할무렵 돌격서렬을 짓고 힘차게 나아가는 불도젤, 굴착기를 비롯한 중기계대오에 《속도 높출것!》이라는 구령이 내려졌다.

분초를 다투는 때에 무엇때문인가.

운전수들이 안타까와하는데 다시 지시가 내렸다. 비좁은 도로껄에 있는 인민들의 살림집을 라리들에 자그마한 손상도 가지 않도록 조심조심 지나가라는것이였다.

그제야 사연을 알게 된 운전수들은 즉시 속도를 늦추었다.

이렇게 복구전투에 진입한 인민군군인들이 일당백속도로 복구전투를 다그칠 때였다. 복구현장으로 향한 길목에는 특별초소가 생겨났다.

자기들을 위해 밤낮이 따로 없이 복구전투를 벌리는 군인들을 위해 조양땅인민들이 안고온 원호물자들을 돌려보내는 임무가 그 초소에 맡겨지였다.

《인민들을 돕자고 온 우리가 사소한 부담이라도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특별초소에 올리면 그 절절한 목소리는 피해지역을 복구할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짧은 기간에 결사관철한 인민군군인들의 기적적승리와 함께 조양탄광지구 인민들의 가슴속에 오늘도 남아있다.

작아도 인민의 재산

여러해전 평양시에서 벌어진 공원건설에 인민군군인들이 참가하였다.

바로 그 시기에 한 구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구역의 한 공원건설장가까이에서 사는 주민이 이른아침 솔임문을 열고 나서다가 깜짝 놀랐다.

간밤에 내린 비로 땅이 푹 젖어있었던것이다.

전날에 온종일 찍어놓은 구멍탄이 축탕이 되였으리라고 생각한 그는 부랴부랴 탄을 찍어놓은 곳으로 향하였다.

그러면 그는 뜻밖의 광경에 걸음을 멈추고 자기 눈을 의심하였다. 구멍탄들이 금방 찍어놓은듯 생생한 그대로였던것이다.

두릿두릿 주위를 살펴보는데 멀리서 비닐막막과 비옷들을 한아름 안고가는 군인들의 모습이 보였다.

주민은 그들에게로 달려갔다.

《다 자는 깊은 밤에 우리 구멍탄을 보살펴준 주인공들이 군인동무들이 아니요?》

그가 이렇게 다우쳐물었지만 군인들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흔드는것이였다.

여러날동안 무진 애를 써서야 주민은 자기 생각이 옳았다는것을 확인하게 되였다.

건설장에 찾아와 거듭 고마움을 표시하는 주민에게 군인들은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응당한 일입니다. 구멍탄은 비록 작아도 인민의 재산이 아닙니까.》

인민의 재산이라면 그것이 크든작든 우리 인민군군인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것이였다.

본사기자

영웅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가슴깊이 새겨가고있다. —동대원구역 고급중학교에서— 김창복 본사기자 찍음

네 자식을 조국보위초소에

벽동군 권창협동농장 제4작업반 김은한, 김성실부부는 네 자식모두를 조국보위초소에 세운 인민군대후방가족이다.

흥대로 사회주의조국을 지키는데 공민의 가장 큰 영예가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이들은 자식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정의 행복도, 조국의 미래도 혁명의 흥대에 의해서만 담보될수 있다는것을 길이 새겨주었다.

부모의 교양을 통해 귀중한 청춘시절을 조국보위에 바치는것처럼 고귀한 삶이 없다는것을 심장에 새긴 이들의 네 자식은 중학교를 졸업하는 차제로 혁명의 군복을 입었다.

자식들이 군사복무를 잘한다는 반가운 편지를 받을 때마다 그들은 더없는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

그들은 당의 현명한 령도아래 사회주의선경으로 나날이 변모되여가는 고향마을의 자랑을 초소들에 보내는 편지에 담군 한다.

그들은 자식들앞에 떳떳하기 위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된 자각을 안고 맡은 농사일을 더 잘할 결의를 가다듬으며 당면한 농사일에 앞장서고있다.

로농통신원 전 준 갑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은 더 좋은 래일을 마중해간다

기행

강원도안의 군민발전소건설장들을 찾아서

승용차는 원산시를 벗어나 회양군으로 뻗은 도로를 따라 쉬임없이 달리였다.

우리와 동행한 강원도군민발전소건설지휘부의 책임일군은 지금 건설중에 있는 여러개의 발전소건설은 공사규모에 있어서 안변청년2호발전소와 원산청년발전소, 원산군민발전소와는 대비할수 없이 방대하지만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승리의 신심드높이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다고 말하였다.

토사굴착량 100여만㎥, 암반굴착량 80여만㎥, 성토량 640여만㎥…

도에서 벌려놓은 발전소건설총공사량에 대한 이 자료만 놓고보아도 참으로 방대하고 아름찬 건설과제라는것을 쉽게 짐작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강력제일주의는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정신입니다.》

회양군민발전소건설장으로 향한 승용차는 고산땅에 이르렀다.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사회주의선경, 세계적인 파일생산기지로 훌륭히 전변된 굴지의 청춘과원을 지나 우리는 철령으로 향하였다. 험준한 산발들이 눈앞에 펼쳐지니 몸소 운전대를 잡으시고 조국수호의 상징으로 우뚝 솟은 험한 이 령길을 넘고넘으시던 우리 장군님의 그날의 선군길이 가슴뜨겁게 안겨왔다.

강원도정신, 아마도 그것은 사연깊은 이 령길을 누구보다 잊지 않고있는 강원도인민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반드시 풀어드리겠다는 충정의 마음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혁신의 나날을 이어가는 과정에 창조되였을것이다.

근 2백리길을 달려서야 우리는 회양군민발전소 언제건설현장에 도착할수 있었다.

강원도군민발전소건설지휘부의 한 일군은 잠시후 협의회가 진행된다고 하였다.

협의회에서는 강원도안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리용하여 강재와 세멘트를 적게 쓸수 있는 기술혁신안이 토의되였다.

도당책임일군은 인재를 적극 찾아내여 과학기술의 힘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우리는 도에서 과학기술을 무엇보다 중시하고있다는것을 느낄수 있었으며 자체의 힘으로 방대한 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내밀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도 짐작할수 있었다.

언제건설장도 들끓었지만 물길굴뚫기전투장도 결코 이에 빠지지 않았다.

회양군민발전소건설장에서 받은 감동은 수백리 떨어진 정강군민발전소건설장에 도착할 때까지도 잊혀지지 않았다.

정강군에서는 군민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년들이 저저마다 탄원하였다.

세포군민발전소 물길굴건설려단의 전투원들은 현지에 도착하여 약수터의 면모를 완전히 일신시켜 주민들은 물론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즐거운 기분으로 약수를 마실수 있게 하는 좋은 일도 해놓았다.

지휘관들의 사업방법에서도 따라배워야 할 점들이 있었다.

려단장은 10여년동안 발전소건설에서 쌓은 귀중한 경험에 기초하여 전투조직을 짜고들었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주간에 실적이 제일 높은 단위에서 사업총화를 조직하여 보여주기사업을 방법론있게 하고있었다.

우리 청년들에게 큰 일감들을 통채로 맡겨준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로력적위훈으로 보답하려는 열의에 충만된 청년들에 의하여 언제건설현장도 청년판으로 들끓고있었다.

물길굴뚫기전투장에서 우리는 남편의 뒤를 따라 발전소건설장에 달려나왔다는 한 녀인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되였다. 이 하나의 사실만 놓고도 제손으로 더 좋은 래일을 가꾸어가는 강원도인민들의 불같은 투쟁열을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세포땅에서도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굳은 의지를 그대로 느낄수 있었다.

세포군민발전소 물길굴건설려단의 전투원들은 현지에 도착하여 약수터의 면모를 완전히 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려는 열의에 충만되여있다고 신심에 넘쳐 말하였다.

모진 시련속에서도 자기 힘을 믿고 결사의 의지로 떨쳐일어나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가려는 투철한 정신력, 고상한 미풍에 심취된 우리는 고성군민발전소건설장을 향하여 쉬재길을 이어갔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창조된 강원도를 전국의 앞장에 내세운 당의 믿음과 기대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간직하고 짧은 기간에 군살림살이에서 일대 전환을 이룩하여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닌 금강군에 들어섰다. 날로 변모되는 산골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제손으로 행복을 창조해가는 금강군의 일군들과 인민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엿볼수 있었다.

금강군에서 맡은 언제는 성토량만 하여도 250만㎥로서 덩치가 큰 수력구조물이였다. 군일군들은 성토량이 방대하고 로력은 제한된 조건에서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무동력삭도를 설치함으로써 많은 연유를 쓰지 않고도 필요한 토량을 보장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고성군민발전소 취수구건설장을 타고앉은 원산화학공장대대 물길굴뚫기전투원들의 기세도 매우 높았다. 갱입구에서 막장까지는 480여m에 달하였다. 석수가 떨어지고 바닥에 물이 고인것을 보면서 갱굴진은 물과의 싸움, 수력발전소건설자체가 물과의 간고한 투쟁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모든 물길굴뚫기전투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고 웨치며 결사적인 투쟁을 벌리던 군인건설자들의 순결한 정신세계, 완강한 투쟁기풍을 그대로 이어받아 하루빨리 완공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었다.

우리는 1호와 2호발전기실 공사장을 거쳐 고성군민발전소 물길굴건설 2려단지휘부에 들리였다. 아담하게 일떠선 건물들과 그윽하게 꾸려진 후방토대는 영웅려단장의 결싼 일솜씨를 대번에 짐작할수 있게 하였다.

려단은 원산시에서 조직된 전투원들이 주력을 이루고있었다.

원산시일군들은 여러 대상의 공사과제를 맡고있지만 발전소건설에서도 원산시가 응당 앞장에 서야 한다고 하면서 공사를 도에서 정해준 날자보다 앞당겨 끝내기 위한 대담한 목표를 내걸고 그 점령을 위한 통이 큰 작전을 펼쳤다.

현장에서는 시당책임일군의 지도밑에 크고작은 협의회들이 진행되여 설비, 자재는 물론 후방사업에 이르기까지 보장대책이 앞질러가며 세워지고있었다.

이에 고무된 전투원들은 정대와 함마로 발파를 보장하여 짧은 기간에 수천m의 도로를 닦고 각종 압축기들을 끌어올려 굴뚫기에 빨리 진입할수 있게 하였다.

쉬재를 심화시키는 과정에 우리는 원산시의 일군들모두가 물길굴뚫기전투원의 립장에서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고있기때문에 려단이 물길굴뚫기를 짧은 기간에 접속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고 신심있게 나가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물길굴뚫기를 빨리 접속해야 한다는 일군들의 결심이 확고해지니 좋은 방도들이 련이어 나왔다. 이곳에서는 막장마다 착암기대수를 2대로 고정시키고 발파를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굴진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줄기찬 전투를 벌리고있었다.

더욱 좋은것은 교대당 굴뚫기실적을 높일수 있게 조직사업을 짜고든것이였다. 전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기능공도 양성하고 모두의 기술기능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창조적지혜를 합쳐가고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완공의 래일을 신심있게 그려볼수 있었다.

이천군에 이르기까지 며칠동안 이어가는 쉬재길에서 우리가 보고 느낀것은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불굴의 공격정신, 창조기풍이였다.

근 2천리에 달하는 쉬재길을 함께 동행한 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리상철동무는 천내리세멘트공장과 문천강철공장,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을 비롯한 도안의 크고작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발전소건설에 필요한 세멘트와 강재, 각종 수지관, 페루 등을 자체로 생산보장하고있기에 발전소건설은 더욱 다그쳐지고있다고 신심에 넘쳐 말하였다.

자체로 전기를 생산하여 문제연선지역에서도 사회주의만세소리를 높이 울리게 하려는 강원도인민들의 굳은 의지가 비껴있는 발전소건설전투장.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로 불러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최상최대의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백절불굴의 의지로 련채일어나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며 발전소건설을 통이 크게 내밀고있는 강원도사람들의 래일은 더욱 휘황찬란할것이라는것을 굳게 믿으며 우리는 귀로에 올랐다.

본사기자 지 혁 철

력사에 길이 빛날 백두령장들의 불멸의 업적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우리의 첫 혁명적무장력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새겨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두자루의 권총으로부터 시작하여 제국주의침략자들을 전률케 하는 무적강군으로 자라난 우리 군대의 력사는 세계의 군건설사에 전례없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군력이 약한탓에 일제에게 짓밟히고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해야 했던 우리 인민이였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면서도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사대와 망국을 숙명처럼 감수해야만 하였던 약소민족이 바로 한세기전 우리 민족의 비참한 모습이였다.

바로 이러한 인민의 운명을 구원해주시고 우리 조국을 빛내여주신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새 력사를 개척하시던 시기에 벌써 총대이자 민족의 생명이고 혁명의 승리라는 철리를 밝히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함에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주체21(193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였다. 이것은 총대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주체적혁명무력의 탄생을 온 세상에 알린 력사적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날 《반일인민유격대창건에 즈음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그때로부터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자기의 참다운 군대, 혁명의 핵심부대를 가질수 있게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혈전만리를 헤치며 정의의 총대로 강도 일제를 타승하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였다.

해방후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지체없이 자립적국방공업의 기초를 다지시고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업적은 또 무슨 말로 다 칭송할수 있으랴.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적혁명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해 바쳐오신 끝없는 로고와 심혈이 있었기에 정규군으로 개편된지 얼마 안되는 조선인민군은 침략전쟁을 도발하고 수적, 기술적우세를 뽐내며 덤벼드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단호히 물리치고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전후에도 내외호전광들의 광란적인 새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며 백전백승의 전통을 끊임없이 이어올수 있었다.

우리 혁명무력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비범한 령도에 의하여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더욱 억세게 자라났다. 사랑하는 병사들을 찾아 우리 장군님께서 헤쳐가신 혁명령도의 길은 그 얼마나 험난했던가. 그 길에는 우리가 언제 순풍에 돛을 달고다닌 일이 있는가고 하시며 사나운 풍랑을 헤치시며 찾아주신 심초소도 있고 위험천만한 판문점과 1211고지도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적인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할수 있는 무적의 최정예대오로 그 위용을 온 누리에 떨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슬하에서 혁명강군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쳐온 조선인민군의 긍지와 영광은 86년전의 력사의 그날과 잇닿아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슬하에서 창건되고 강화발전되여온 주체적혁명무력의 성스러운 력사는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여 더욱 빛나고있다.

지금도 우리 겨레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아침을 군령도의 길에서 맞으시던 위대한 령장의 기특한 영상을 잊지 못한다.

온 겨레가 운명의 하늘, 마음의 기둥으로 믿고 따르던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를 너무도 뜻밖에 잃고 피눈물속에 맞이한 주체101(2012)년의 첫아침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주체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할 불굴의 의지를 안으시고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거룩한 령도의 자욱자욱이 가는 곳마다 뜨겁게 어려있는 사단의 곳곳을 돌아보시면서 105땅크사단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사적이 제일 많은 군부대들중의 하나이라고, 105땅크사단은 명칭만 불러보아도 장군님의 체취와 체온이 느껴진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간곡한 그 말씀, 부대지휘관들과 손을 잡고 팔을 굳게 끼신 거룩한 그 영상에서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과 유훈을 받들어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안아오시려는 백두령장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가슴뜨겁게 절감하였다.

인민군부대들을 끊임없이 찾으시여 우리 군인들에게 필승의 의지가 탑긴 기관총과 자동보총, 쌍안경을 안겨주시고 백두의 훈련열풍이 나래치는 훈련장들에서 군인들의 총합전술훈련과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해주신 그이의 탁월하고 세심한 손길이 있어 우리 인민군대는 만능의 주체전법과 백승의 경험을 소유하고 그 어떤 현대전에도 능히 대처할수 있는 불패의 강군으로 자라났다.

우리 혁명무력의 무적필승의 기상앞에 세계가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온 겨레는 한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새겨안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그이는 정녕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천재적인 예지와 탁월한 령군술, 무비의 담력과 필승의 신념을 지니시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해주시는 민족의 위대한 은인, 백두의 천출명장이시다.

천하제일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주체적혁명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해 온갖 로고를 바쳐오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군건설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김 현 철

탁월한 군사전략가, 세계정치원로

여러 나라에서 경축행사 진행

태양절을 맞으며 네팔, 방글라데슈,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영국에서 5일부터 13일까지의 기간에 토론회, 도서 및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희세의 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성과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태양의 불 김일성화》, 《일심단결로 승리떨쳐온 내 조국》을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네팔기자협회 위원장을 비롯한 발언자들은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한세대에 미일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위대한 수령님을 탁월한 군사전략가, 세계정치원로로 높이 칭송하였다.

그들은 조선로동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건설하였다, 조선의 눈부신 발전모습은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과시로 된다고 하면서 네팔인민들도 주체사상을 따라배워 자체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방글라데슈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자리야당 총비서, 인민련맹 위원장, 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은 우리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찬양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을 위해 힘차게 투쟁하는 우리 인민에게 굳은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인도네시아 밀레니아 아르마다 엑스프레스회사 사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김일성주석께서는 간고한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였으며 조선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기발한 혁명실천으로 반제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자주시대를 개척하시고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그이께서는 인류의 마음속에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쿠웨이트 아시아기자협회 위원장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민족적독립과 새 사회건설을 위한 수많은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해주신 인류의 대성인이시며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신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라고 격찬하였다.

영국신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였으며 인민을 제일중심에 놓고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시였다, 조선의 사회주의가 끄떡없는것은 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이 있기때문이다고 말하였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은 주체사상의 창시와 령도의 계승문제의 빛나는 해결은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업적중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네팔, 영국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과 편지가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협상을 통해 본 날강도의 정체

미국이 운운하는 남조선과의 《동맹》이란 저들의 탐욕을 실현하기 위한 지배와 략탈의 올가미이다. 최근 미국이 남조선당국과 벌려놓은 《방위비분담금》협상을 통해 그것이 다시금 립증되였다.

얼마전 제주도에서는 미국과 남조선사이에 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위한 2차회의가 있었다. 회의전부터 남조선에서는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인상을 압박할것》이며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이 엄청난 액수에 달할 전망》이라는 불안감에 싸인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그도그럴것이 력대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이 개정될 때마다 남조선당국이 부담할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 와서는 거의 1조원에 달하고있다. 특히 이번의 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위한 2차회의를 앞두고 미당국자들은 남조선으로부터 《방위비분담금》을 더 많이 받아내야 한다고 공공연히 떠들었다.

실제로 이번 회의에서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는 그야말로 날강도적인것이였다. 미국은 미전략자산의 조선반도전개비용도 《방위비분담금》에 포함시켜 지불하라고 무작정 내리먹이면서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유지비용을 2배로 늘일것을 강박하였다. 지어 《싸드》운용유지비용을 저들이 부담한다고 했던 초기의 약속을 집어치우고 그것마저 남조선당국에 떠넘길 심보를 드러냈다.

이것은 남조선의 실제적인 지배자인 미국의 정체를 더욱 똑똑히 보여주는것으로서 남조선경제의 어려움과 인민들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는 그야말로 황포무도한짓이다.

미국은 남조선을 《방위》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저들의 침략적리익과 패권적야망을 실현할 기도밑에 이곳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있다. 따라서 모든것이 정상이라면 마땅히 미국이 남조선에 자기 침략군의 주둔비용을 내야 한다. 하지만 보다싶이 미국은 오히려 《방위비분담금》의 명목으로 남조선으로부터 엄청난 액수의 인민혈세를 빨아내고있다. 이자체가 강도의 전횡이 아닐수 없다.

미제침략군의 강점은 남조선인민들이 겪는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다. 미국이 남조선에 침략의 군화발을 들이민 때로부터 인민들이 당한 재난과 흘린 피는 그 얼마였던가. 미국은 응당 남조선인민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온갖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들에 대해 백배, 천배로 사죄하고 배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금껏 받아먹은 돈도 모자라 《방위비분담금》을 더욱 늘일것을 강박하였고 나중에는 저들의 전략자산을 조선반도에 전개하고 《싸드》를 운용하는데 드는 비용까지 내라고 호통치고있다.

남의 집에 뛰여든 불청객이 오히려 그 대가를 물어내라고 강박하는것은 미국식오만성의 극치이며 이러한 횡포는 오직 남조선에서만 볼수 있는 기막힌 현실이다.

현실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미국은 남조선을 저들의 패권전략과 함흥실현에 필요한 도구, 한갖 략탈과 착취의 대상으로밖에 보지 않는다. 미국이 아무리 남조선과의 《동맹》에 대해 떠들어대도 그것은 불평등한 남조선미국관계의 진면모를 가리우기 위한 기만일뿐이다. 제주도에서 열린 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위한 2차회의를 지켜보며 남조선인민들은 이것을 다시금 똑똑히 깨달았다.

남조선의 한 인사가 《과연 누구를 위한 군사〈동맹〉인가. 자국의 군사적목표와 리익을 위해 절명지민중의 혈세를 불법강탈하고 불안과 공포만을 조장하는 미국을 규탄한다.》고 울분을 토로한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오만무례한 강박에 번번히 항변도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상전의 요구에 끌려다니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미전략자산의 조선반도전개비용문제는 《방위비분담금》협의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미국과 좋혀야 할 간극이 크다.》고 우는소리를 하고있다. 그리고 《〈싸드〉관련비용은 고려할수도 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기미를 보이고있다.

주대를 잃고 남의 눈치를 보게 되면 동족을 반대하는 외세의 전쟁비용도 감당하지 않으면 안되는 수치스러운 처지에서 영원히 벗어날수 없게 될것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은 미국의 강도적요구에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당국이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닐것이 아니라 《방위비분담금》규모를 줄이는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북남관계가 새로운 궤도에 올라서고 조선반도정세가 완화의 국면에로 전환되고있는 시기에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벌려놓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위한 협상놀음은 남조선인민들의 강력한 비난과 배격을 면치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은 정 철

배격을 받는 《싸드》배치소동

최근 남조선에서 《싸드》기지건설책동에 분노한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날로 격렬해지고있다.

지난 12일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주민들을 비롯한 200여명의 시민사회단체성원들은 《싸드》기지의 내부시설공사를 위한 자재와 장비들의 반입을 저지시키기 위해 길목을 트락또르로 가로막고 완강하게 맞서싸웠다.

투쟁을 탄압하기 위해 3000여명이나 되는 경찰병력이 투입되였지만 그들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으며 서로 몸들을 련결하고 《폭력경찰 물러가라!》, 《불법〈싸드〉공사 중단하라!》고 웨치면서 통성을 벌리였다.

19일에는 《싸드》철회평화회의가 립장문을 통해 《싸드》기지건설공사를 강행하는 군부의 불법적인 처사를 원한과 분노에 찬 목소리로 단죄규탄하였다. 단체는 각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끝끝내 권력을 발동하여 《싸드》기지건설공사를 강행한다면 그를 결사적으로 저지시킬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도처에서 《싸드》기지건설을 반대하는 투쟁이 계속되고있는 속에 미국과 남조선사이에 진행된 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위한 2차회의에서 미국이 《싸드》관련비용을 저들이 지불하기로 한 초기약속을 뒤집으면서 그것을 남조선에 떠넘길 속심을 드러내고 당국이 그에 굴복하여 《방위비분담금》에 포함시켜 부담할수도 있다고 한것과 관련하여 각계의 《싸드》반대투쟁은 더욱 열기를 띠고있다.

이것은 미국에 추종하는 《싸드》배치놀음을 절대로 용납치 않으려는 남녘의 민심을 잘 보여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대세의 흐름과 민심의 지향에 역행하며 《싸드》배치책동에 매달리고있다. 지금 남조선군부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싸드》기지에 대한 공사장비반입을 끝까지 반대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고있다. 얼마전 경찰의 폭압만행으로 《싸드》기지의 공사장비반입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에 나섰던 주민들이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가는 참사가 빚어졌다.

남조선에 대한 《싸드》배치가 전조선을 타고앉으며 나아가서 주변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하여 침략적인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을 실현해보려는 미국의 흉악한 기도에 따른것으로서 박근혜패당이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반대요구를 짓밟고 불법적으로 강행한 매국배족적책동의 산물이라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은 민중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그 누구의 《위협》을 구실로 미국상전의 날강도적인 요구를 덥석 받아문 박근혜역적무리의 매국적추태를 단죄하면서 오늘까지 《싸드》철회를 요구하는 투쟁을 중단없이 벌려왔다.

이것을 모르지 않는 남조선당국이 《싸드》기지건설을 계속 강행추진하면서 그에 항거하는 인민들을 폭력으로 탄압하는것은 박근혜역도의 전철을 밟는 행위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각계층 인민들의 강력한 요구대로 법써 이미전에 박근혜패당의 범죄적인 《싸드》배치결정을 전면백지화하고 끌어들인 《싸드》를 당장 철거시키는 결단부터 내렸어야 마땅하다.

《초불정권》을 운운하는 남조선당국이 보수패당의 적폐중의 적폐인 《싸드》를 계속 붙안고 평화에 대해 광고하는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이 《박근혜가 시작한 〈싸드〉를 〈초불정권〉이 계속하는것을 리해할수가 없다.》, 《평화의 봄이 오는데 〈싸드〉배치라니 웬 말인가.》, 《〈싸드〉공사 중단하라.》고 웨치면서 《싸드》배치반대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 의지를 피력하고있는것은 당연하다.

그들은 북의 탄도로케트시험발사가 중지된 이상 그를 구실로 끌어들인 《싸드》도 철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민심을 거스르며 《싸드》기지건설공사를 계속 다그치고있다. 더우기 각계의 비난을 자아내는것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인민들의 혈세까지 《싸드》비용으로 제공하려 하고있는 사실이다.

미국에 추종하여 《싸드》배치에 광분하는것은 스스로 제는을 찌르는 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은 전쟁피물인 《싸드》를 비롯한 재앙단지들을 끼고있다가는 화밖에 당할것이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옳바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

침략적인 《싸드》배치를 강박하며 흉악무도하게 날뛰는 미국의 날강도적행위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민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싸드》를 신성한 강토에서 송두리채 들어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라 설 하

민심을 우롱하는 불순한 야합

남조선에서 지방자치제선거가 다가오고있는 가운데 보수패거리들이 어떻게 하나 불리한 형세를 뒤집어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이번 선거에 후보로 나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일부 개명적인물들이 보수야합, 선거련대를 꾀하고있는것이다.

이자들은 보수야당들의 상층부가 인위적인 선거련대는 없다고 공식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권련대를 주저해서는 안된다.》, 야권련대는 지방자치제선거뿐만아니라 앞으로의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위해서도 《절실하다.》고 떠들면서 후보단일화를 비롯한 선거련대를 지역별로 실현할 흉계를 꾸미고있다. 현 상태에서는 선거를 해보나마나 대참패가 기정사실인 조건에서 보수의 련합으로 지리멸렬의 위기를 모면하자는것이 이자들의 계책이다. 그것은 그 어떤 리념이나 정책의 련대가 아니라 단지 잔명부지를 위한 더러운 야합일뿐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패거리들의 선거련대놀음이 멸망을 눈앞에 둔 정치시정배들의 부질없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은 더 론할 여지도 없다. 보수야당패거리들이 지방자치제선거가 다가오는데 바빠맞아 벌리고있는 선거련대소동은 초불민심을 우롱하는 리명박, 박근혜적폐세력의 불순한 결탁행위로서 남조선 각계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다가오는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리명박, 박근혜잔당들에게 최후의 징벌을 안기고 새 정치, 새 생활을 지향해나갈 의지를 벼려고있다.

본사기자

남조선단체들

참사진상규명을 방해한자들의 사퇴를 요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4.16가족협의회와 4.16련대, 《세월》호 잊지 않기 목포시역공동실천회가 17일 목포신항에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은폐한 자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발언자들은 지난 2015년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자리에 기여들어와 박근혜년의 《세월》호사고 당일 7시간행적에 대한 조사를 방해한 황전원의 사퇴를 요구하였다.

그들은 또한 2014년에 《세월》호침몰원인을 밝히기 위해 진행한 100여차례의 실험사실을 숨긴 당시 실험책임자였던 선체조사위원회 위원 리동곤도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4.16가족협의회의 한 성원은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감추고 진상규명을 방해한자들을 절대로 용서할수 없다고 하면서 삭발을 하고 단식릉성투쟁에 돌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중국 일본정객들의 야스구니진쟈참배 비난

중국외교부 대변인 륙강이 21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정객들의 야스구니진쟈참배를 비난하였다.

그는 일본국회 의원들이 무리로 야스구니진쟈에 몰려가 참배하고 수상 아베가 공물을 봉납한것과 관련하여 중국은 일본이 정확한 력사관을 가지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력사를 똑바로 보고 반성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성행하는 패륜패덕행위

일본당국자들은 찍하면 자기 나라는 《법치국가》이며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큰잘 외우고있다. 그러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살인행위로 날이 밝고 해가 지는 범죄왕국이다.

올해에 들어와 도처에서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살인범죄로 경찰청이 몸을 떨이고있다. 이제는 도수를 넘어 혈육간에 서로 죽일내기를 하는 패륜패덕이 만연하고있다.

짐승보다 못한 부모들

얼마전 도꾜에서 아버지가 자기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하여 5살 난 딸을 주먹으로 때려죽인 사실이 드러나 사회계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이보다 앞서 도꾜에서 아버지가 태어난지 2개월밖에 안되는 딸에게 매를 안겨 죽인 사실이 밝혀졌다. 죽은 딸의 얼굴과 몸에는 여러군데 멍이 나있었다고 한다. 조사과정에 그는 뻔뻔스럽게도 딸애의 울음소리가 귀찮아 매를 안겼다고 진술하였다.

아버지와 딸, 이 얼마나 다정하고 육친적으로 가까운 사이인가. 아마도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무엇인가고 물으면 대다수가 부모와 자식관계라고 대답할것이다. 자식이 당한 불행이 설사 작은것일지라 하더라도 부모는 그것을 이루 형언할수 없는 아픔으로 느끼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일본사회에서는 자식에게 기울여야 할 부모의 정이 깡그리 말라버렸다.

자식을 낳아키우는것을 부담으로, 팔치거리로 여기다보니 딸을 죽이고도 말을 잘 듣지 않았기때문이라고, 딸의 울음소리가 귀찮았기때문이라고 서슴없이 내뱉고있는것이다.

요꼬하마시에서 어느 한 부부가 태여난지 6개월밖에 안되는 자기의 딸에게 물마저 제대로 주지 않고 내버려두어 죽게 한 사건을 비롯하여 일본에서 자식들을 마구 죽이는 참극은 무지기수로 일어나고있다.

야수로 되여가는 자식들

일본의 후생로동성이 밝힌데 의하면 지난해에 전국적으로 로인들에 대한 학대행위건수가 공식 신고된것만도 약 1만 6840건에 달하였다.

지금 일본에서는 자식들이 부모들을 천대하고 심지어 살해하는 비인간적행위가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다.

지난 2월말 이바라기현에서는 아들이 어머니의 목을 졸라죽인 끔찍한 범죄행위가 적발되였다. 그런가 하면 사이다마현에서는 아들이 함께 살던 늙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산송장취급하며 학대하던 나머지 제손으로 부모를 살해하여 사람들을 경악시켰다.

그뿐이 아니다.

시가현에서 아들이 전기선으로 자기 아버지의 목을 졸라죽인 사건, 아끼다현에서 아들이 어머니의 몸에 석유를 끼얹은 다음 불태워죽인 사건 등 듣기만 해도 소름끼치는 악행이 비일비재로 나타나고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것은 자식의 마땅한 도리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자기를 낳아키워준 부모를 시끄러운 존재로 여기며 목숨까지 앗아가는 짐승도 낯을 붉힐 끔찍한 살인행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는것이다.

* *

설사 혈육이라 할지라도 《나》라는 개인의 사리사욕과 배치될 때에는 자식이든 부모든 눈 한번 깜짝 안하고 죽이는 말세기적풍조가 례사로운 일로 되여버린 일본, 이것이 바로 초보적인 인륜도덕마저 깡그리 사라져버린 《법치국가》 일본의 부정할래야 부정할수 없는 엄연한 사회현실이다.

본사기자 림 원

우리의 국권, 인권을 유린해온 만고죄악

해방후 남조선을 피의 란무장으로 만든 살인악마

미국은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한 후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1946년 8월 15일 조국해방 1돐 기념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전라남도 광주로 가던 화순탄광 로동자들을 중무장한 병력과 비행기, 땅크까지 내몰아 기습살륙하였다.

또한 기념집회를 하고 돌아가는 그들에게 또다시 야수처럼 달려들어 수백명의 로동자들을 무참히 사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 지어 미제야수들은 학살현장을 1주일동안이나 봉쇄하고 희생자들의 시체를 운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반인륜적악행도 서슴지 않았다. 당시 학살만행현장을 직접 목격한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아비규환의 생지옥이였다. 로동자들이 흘린 피로 물든 땅은 마치도 치렬했던 전장을 방불케 하였다.》

이렇듯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침략군의 야수적인 탄압의 대상으로 되였다.

1946년 10월인민항쟁때 미제침략군은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보장, 군정폐지를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무자비하게 진압하였다. 수만명의 사상자가 나고 수천명이 행방불명되였다.

1948년 4월 제주도인민봉기가 일어나자 미제침략군은 《제주도땅이 필요하지 제주도민은 필요치 않다.》, 《전 섬에 휘발유를 퍼붓고 불태워죽여도 좋다.》고 떠벌이면서 군사깡패들을 내몰아 봉기자들을 총으로 쏘아죽이고 칼로 찔러죽이고 목매달아죽이고 생매장해죽이였다. 주민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7만여명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1948년 10월에는 려수군인폭동을 야수적으로 진압하면서 전라남도 려수와 순천에서 2400여명을 학살하고 4500여명에게 중경상을 입히였다. 1949년 12월부터 1950년 1월까지 지리산, 태백산, 오대산 등 5개 지구에 대한 《토벌》에서도 4만여명을 학살하고 수만명에게 부상을 입히였다.

그야말로 남조선은 미제의 군화밑에 짓밟힌 거대한 인간도살장이였다.

배륜패덕에 몸짓을대로 몸짓은 미제야수의 무리들은 남조선땅에서 살인과 강간, 폭행 등 온갖 소름끼치는 범죄행위들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부산시의 어느 한 식당주인이 저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여 마구 때려 죽사시킨 사건, 풍중비저들이 목도주변에서 물고기잡이를 하던 남조선어민들에게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하여 11척의 어선을 파괴하고 14명의 어민들을 살해한 사건, 인천항에 주둔하고있던 미제침략군이 길가던 조선사람들에게 사격을 가한 사건, 렬차안에서 20여명의 미제침략군이 어린아이까지 업은 3명의 조선녀성들에게 달려들어 집단적으로 륜간한 다음 마구 때려 질식시킨 사건 등은 이미 세상에 잘 알려져있다.

당시 미군정고문의 말을 들어보자.

《…남조선에 상륙한 미군은 우선 닥치는대로 부녀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도시나 농촌이나 미군이 가는 곳마다에는 공포와 전률이 범돌았다. …남조선에서 미군의 폭행사건은 일상사였다. …남조선에 주둔한 미군은 마치 아프리카에 사냥이나 온것처럼 생각하고있었다. …미군은 기차를 타고갈 때에나 자동차를 타고갈 때에나 산야에서 일하고있는 농민들과 행인들을 마치 아프리카에서 짐승사냥하는것처럼 총으로 쏘아죽이군 하였다. …미군은 조선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해방후 남조선에서 미제가 감행한 범죄는 규모와 지속성, 포악성에 있어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전대미문의것이였다.

남조선에 더러운 군화발을 들여놓은 때로부터 1950년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무려 100여만명의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하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미제야말로 남조선을 불법, 비법적으로 타고앉은 강점자, 피에 주린 살인악마, 야수의 무리이다.

본사기자 손 소 연

ㄱ-810657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말소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